Sunny FM 90.7MHz로 듣는
인천영어뉴스

Meet Incheon, Enjoy English!
인천소식도 알고, 영어도 배우며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으세요

사라한의 Enjoy English 매일 아침 6시~7시

Flying Incheon News 인천의 소식과 함께 국내외 뉴스를 영어로 접해 보아요~
I Sing You Sing 한 주에 한 곡씩 노래를 따라 부르며 발음과 리듬을 연습해 보아요~
Ready, Action! 영화 속의 대사를 공부해 보아요~
Good Morning Incheoners 대중교통 종사자를 위한 영어회화를 하루에 한마디씩 따라해 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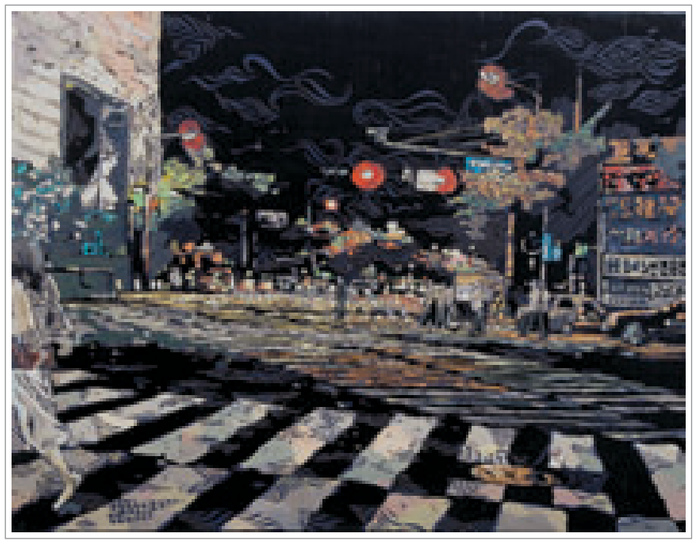
Fly Incheon News 월~금요일 11:00~11:04, 13:00~13:04, 17:00~17:04

인천에 사는 외국인을 위한 인천소식과 국내외 소식을 전하는 영어뉴스

※ 방송 다시듣기 www.sunnyfm.co.kr

Good Morning
INCHEON
인천광역시

시대가 낳은 일상의 풍경



박상희 作 · 116.7㎝×90.9㎝ · 아크릴과 씨트지 컷팅 · 2007

난잡한 간판의 문구, 대형 할인매장에 쌓여 있는 과자 봉지들…. 도시의 복잡하고 정리되지 않은 듯 한 풍경들이다. 개발위주의 시대가 낳은 현재 한국 사회의 풍경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인위적이다. 그러나 그런 도시에서 나고 자란 나에게 한국 도시만이 갖는 풍경은 색다른 정감과 삶의 애착을 발견할 수 있는 보물창고이다. 작품 제작은 플라스틱 씨트지를 캔버스에 붙이고 칼로 형태를 따 오려내는 방식이다. 화면상에서는 구별하기 어렵지만 씨트지의 얇은 두께가 약간의 입체감을 만들어 내, 평면 회화에서 느껴지는 것과는 다른 옵티칼한 감각이 작품 감상에 새로운 재미를 가져다준다. -박상희

Good Morning
INCHEON
| 세 | 계 | 일 | 류 | 명 | 품 | 도 | 시 | 인 | 천 |
2008. 9

CONTENTS

September 2008 통권 177호

표지에 담는다
세계 명품도시 ⑧ 프랑스 파리 (사진:이형준)

Fly Incheon_

06 View — 송도 중앙공원
10 Zoom in —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 인천
16 Open — 송도컨벤시아
20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 주요 컨텐츠
26 Fly Incheon News — '검단 신도시 확대 지정' 외
29 웰컴 투 인천 — '아 · 태도시정상회의 양해각서 교환' 외
30 군 · 구 소식 — '차이나타운 패루 재설치' 외
31 포커스 — 여객선운임 지원
32 시의회 소식 — '인천시의회 의정활동 높이 평가' 외
36 세계 명품도시 탐방 ⑧ — 프랑스 파리
58 영어회화로 인천배우기 — 월미축제

Incheon Life_

04 인천의 산 — 마니산
14 미리 가 보았습니다 — 강화평화전망대
22 정보뱅크 — 한가위 맞이 우리지역 특산물
40 막.上막下 — '미스터브라스 밴드' 외
43 생활법률, 아하 그렇군요 — 약속어음 공증의 소멸 시효
46 Healthy Life 건강백세 — 수면장애
52 Info Box — '중추절 맞이 이웃돕기 캠페인' 외
59 지상(誌上) 박물관 — 근대 문물

Incheoner_

33 모닝인터뷰 — 인천시의회 이근학 제1부의장, 유천호 제2부의장
34 모닝커피 한 잔 — 음악으로의 초대
35 김치찰칵 — '더위는 날리고 힘아 솟아라' 외
44 인천역사 책갈피 — 국제외교의 1번지였던 제물포
47 함께 나누는 세상 — 급여 우수리 나눔
48 만화로 보는 인천인물 열전 ⑧ — 검여 유희강
50 독자글마당 — '쉬~ 할 형아~' 외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됩니다. 구독문의 (032-440-8304) / 광고문의 (032-440-2042)

발행처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구월동 1138번지)
발행일 2008년 9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편집인 공보관 김진택
공보담당 사무관 조형도

편집장 유동현
취재 편집위원 정경애
편집위원 정경숙
사진 심영보 · 하장원(시 공보관실)
김성환(포토저널리스트)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편집디자인 성광디자인(주)
인쇄 (주)해동종합기획
〈굿모닝인천〉은 http://goodmorning.incheon.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氣 어우러지는 영산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 목청껏 외쳤던 올림픽 응원으로 몸에서 진이 다 빠져 나간 듯 하다.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지칠대로 지친 심신은 산이 그립다.
구월이 오면 올 가을 산행 목록에 기를 충만하게 재충전할 수 있는 마니산을 꼭 넣어보자.

글 · **유동현** 본지 편집장 | 사진 ·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한반도의 배꼽이자 겨레의 머리

한반도 지도를 펴고 콤파스 한쪽 침을 마니산에 꽂고 남쪽 한라산과 북쪽 백두산에 대보면 그 길이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니산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두 영산(靈山)의 정기를 고스란히 받은 한반도의 배꼽이다.

단군 할아버지께서도 이 사실을 아셨는지 까마득한 그 옛날, 신시(神市)의 백성들을 이끌고 이 봉우리에 올라 손수 돌을 주워서 위는 네모지게 아래는 둥글게 '우주'를 쌓아서 하늘에 제를 지내셨다.

영험한 산 마니산(468m)을 오르는 길은 여럿 있다. 화도면 상방리 마니산국민관광지 쪽에서 오르면 917개의 계단길을 통해 가장 짧은 시간에 정상에 오를 수 있다. 무릎 관절 꺾임의 두려움이 있다면 산 반대편의 함허동천이나 정수사 길을 이용하는 게 좋다. 소나무와 참나무의 적절한 조화 사이로 살짝 살짝 열리는 하늘을 볼 수 있는 오솔길로 시작된다. 능선을 타고 얼마간 오르막을 걷다 뒤돌아보면 멀찍이 바다와 하늘이 맞닿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숨이 턱밑 까지 차오르기 시작하면 갑자기 덩치 큰 너럭바위들이 나타난다. 산길은 이제 투박한 '돌맛'의 재미를 솔솔 느낄 수 있는 바윗길이 된다. 오랜 세월 견고하게 쌓은 성곽처럼 산을 남북으로 갈라놓고 있는 바위들은 마니산의 이두박근이다. 천년 풍상을 이겨낸 근육들이다. 이 길은 마니산 등정의 하이라이트다. 마치 천상(天上)으로 안내하는 듯한 이 길은 등산객의 다리와 심장 근육도 두툼하게 만드는 길이다.

오르다 문득 뒤를 돌아보니 바다는 끝 간 데 없이 아득히 물러나고, 햇빛에 반사된 갯벌은 캔버스 위 덜 마른 유화처럼 질펀하다. 산등성이를 타고 올라오는 한줄기 '바다 바람'이 산행객의 등을 자꾸 정상으로 밀어낸다.

잠시 후 정상. 세상은 모두 발아래 있다. 일망무제(一望無際). 세상은 한눈에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아득하게 멀고 넓어서 끝이 없다. 하늘을 혼자 떠받들고 있는 참성단의 모양새가 의젓하기만 하다

우리나라 제일의 생기처

'겨레의 머리가 되는 성스러운 산'이라는 뜻으로, 머리의 옛말인 '마리산'으로도 불리는 마니산은 범상치 않은 산이다. 1972년 아폴로 16호가 달에 착륙하여 우주인이 지구를 내려다보니 유난히 서기(瑞氣)가 뻗치는 곳이 보여 사진을 찍어두었다. 후에 지구로 귀환하여 그 곳이 어디인지 알아봤더니 바로 강화도 마니산 일대였다고 한다.

마니산이 기가 아주 센 곳이라는 것은 자기탐사기 '엘로드'의 측정으로도 판명이 되었다. 엘로드의 회전수가 마니산 46~60, 합천 해인사 18~46, 대구 팔공산 16, 고창 선운사 16 등으로 측정되었다.

우리나라 제일의 생기처(生氣處)인 마니산에서는 지난 6월부터 기 체험 행사가 열리고 있다. 기가 강하게 나오는 지점으로 조사된 계단로와 단군로 등 두 곳의 등산로에서는 11월 말까지 매주 둘째, 넷째 토요일에 등산객을 상대로 기 수련 교육을 한다. 이 밖에 단전호흡, 기 체조, 요가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마니산 등산코스

① 상방리관리사무소 ~ 기도원 ~ 계단로 ~ 정상 ~ 하산 (약 2시간)
② 상방리관리사무소 ~ 단군로 ~ 정상 ~ 하산 (약 2시간 30분)
③ 상방리관리사무소 ~ 계단로 ~ 정상 ~ 함허동천 (약 3시간)
④ 정수사 ~ 함허동천 갈림길 능선 ~ 암릉지대 ~ 정상 ~ 참성단 (약 3시간)

'바다'를 공원에 들여놓다

마천루가 즐비한 도시에서, 수상택시를 타고 바다 위를 가로지르고 산책로를 거닐며 푸른 자연을 만끽한다. 꿈이 아니다. 내년 6월이면 송도국제도시에 뉴욕 센트럴파크를 모티브로 한 도심형 공원이 조성된다. 송도 중앙공원, 그곳은 회색빛 일상에 지친 도시인들이 꿈꾸는 파라다이스다.

글 ·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2009년 6월, 송도국제도시 업무단지 내에 뉴욕 센트럴파크를 모티브로 한 송도 중앙공원이 탄생한다.

도심 속 빛나는 자연

뉴욕에 센트럴파크가 없었다면 미국인이 그토록 뉴욕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인간에게 자연은 영원한 노스탤지어. 특히 마천루가 즐비한 도시를 살아가는 현대인이게 푸른 숲, 맑은 공기, 깨끗한 물은 늘 그리움의 대상이다.

센트럴파크가 뉴요커는 물론 뉴욕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평화로운 휴식을 선사하 듯, 내년 6월이면 송도 중앙공원이 도시인의 삶에 넉넉한 여유를 드리울 것이다.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모티브로 한 중앙공원은 공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도심 속 휴식처다.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의 중심부에 40만5천여m^2 규모로 조성하며, 지난해 2월 공사를 시작해 인천세계도시축전이 열리기 전인 내년 6월 마무리할 계획이다. 송도공원이 공사를 마치면 국제업무단지의 송도컨벤시아, 호텔, 업무시설 등과 어우러져 송도국제도시의 숨통을 트는 허파역할을 하게 된다.

공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다

송도 중앙공원은 도시인의 휴식처는 물론 레저와 교육 등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세계적인 공원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먼저 동고서저형인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에 따라, 공원을 해안 · 습지 · 구릉 · 계곡 · 산악지대 등으로 다양하게 형상화했다. 바닷가를 산책하다 서해 바다와 만나고, 숲이 우거진 산책로를 거닐다 산정상에 올라 인천을 품에 안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공원을 가로지르는 '바닷물'과 이를 이용한 수변공간은 중앙공원을 가장 돋보이게 하는 요소다. 공원 내에 바닷물을 끌어들여 수로를 조성하는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해외에서도 흔치 않은 사례다. 바닷물을 이용해 수로를 만들면, 공사비와 유지비가 절감되고 겨울에도 물이 얼지 않으며 무엇보다 공사가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수로는 길이 1.8㎞ 폭 12m~110m로 조성되며, 그 위로 수상택시가 운행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돕는 보트하우스가 세워진다. 영화 속에서나 봄직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다.

녹지율 40%의 송도국제도시는 자연이 살아 숨쉬는 그린시티로 조성된다.

도시인이 꿈꾸는 파라다이스

공원에는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박물관과 조각공원, 수족관과 전시실 등을 갖춘 생태관, 생태관과 연계한 자연학습장과 잔디광장 등을 조성한다. 더불어 자연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수변 산책로와 정원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한다. 이들 시설물은 특히 국제업무단지를 찾는 외국인들을 고려해, 전통정자 등을 세워 한국 고유의 색채가 묻어나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6월이면, 송도국제도시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랜드마크가 세상에 모습을 나타낸다. 송도 중앙공원은 인천시민은 물론 세계 비즈니스맨들의 삶에 초록빛 여유를 드리우는 휴식처가 될 것이다. 송도 센트럴파크, 그곳에 가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자연이 기다리고 있다.

세계 속 도심공원

아무리 빌딩이 숲을 이루고 도시가 발전한들 자연이 없다면 삶은 공허할 것이다. 회색빛 도시에 자연의 싱그러움을 덧입히는 세계의 공원으로 간다.

뉴욕 센트럴파크

· 뉴욕 센트럴파크(Central Park)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공원으로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다. 3.4㎢ 부지에 숲을 비롯해 연못, 잔디, 정원, 동물원, 시립미술관 등이 조성돼 있다. 시민은 물론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공원으로, 1850년 공사를 시작해 1960년대에 완성했다.

· 런던 하이드파크(Hyde Park)

영국 왕실공원으로 찰스 1세 때 런던 시민에게 공개했다가 공화국 시대에 매각된 뒤 왕정복고와 함께 시민들의 품에 안겼다. 풍부한 수목과 연못, 조각상이 아름답게 펼쳐진 런던 시민들의 휴식처다. 공원 내에서 야외음악회와 공연 등이 열리며, 호수에서 보트놀이와 수영 등을 즐길 수 있다.

· 해글리공원(Hagley Park)

뉴질랜드 남섬 북동 연안 크라이스트처치에 자리 잡은 180만㎡의 광대한 공원. 공원 안에 숲과 산책로, 공원 면적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보타닉 식물원 등이 들어서 있다. 또 레포츠에 열광하는 뉴질랜드 사람들을 위해 크리켓장과 럭비장, 테니스장, 골프장 등의 시설을 조성했다.

■ 송도 중앙공원 주요시설

박물관 지하 2층, 지상 2층에 1만2천㎡ 규모로 전시실, 강연실, 방문객 서비스실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19세기와 20세기 서양화와 조각품을 중심으로 현대미술품을 전시해 송도의 문화 메카가 될 꿈을 안고 있다.

산책정원 중앙공원을 대표하는 자연친화적인 공간. 자연을 고스란히 옮겨 온 듯, 지형의 높낮이가 달라 다이내믹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소나무 산책로와 돌이 깔린 계곡 등으로 자연친화적인 감성을 살렸다.

보트하우스 수상택시 정류소. 200여㎡ 규모로 2채를 지을 계획이다. 정류소와 매표소 기능을 하는 것은 물론 화장실과 휴게실 등을 설치해 이용객의 편의를 돕는다.

조각공원 공원의 수로 주변을 거닐며 미술품과 조각품을 감상할 수 있다. 박물관을 비롯해 꽃과 나무가 심어진 산책로 등이 조성된다.

조지원 습지원, 생태관 등과 연계해 생태학습과 체험이 가능한 자연학습공간으로 조성한다. 또 어린이 놀이공원과 잔디광장, 방문자센터를 갖춰 시민들이 친숙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

테라스정원 공원의 출입구에 자리하며, 마당이라는 개념으로 한국 전통의 정원양식을 형상화한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광장과 보트하우스, 생태관 등이 들어선다.

수변산책정원 직선과 면의 요소를 이용해 반듯하고 세련된 도시의 이미지를 풍긴다. 수변을 따라 화단길과 연못 등이 들어서 있어 안락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생태관 지하 2층, 지상 3층 2만여㎡ 규모에 수족관과 전시실을 비롯해 레스토랑과 상점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또 건물 표면을 투명한 구조로 만들어 공원을 조망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다.

지하 주차장 지하 3층, 지상 2층에 연면적 7만여㎡ 규모로 2천500여대 주차할 수 있다. 공원 방문객은 물론 호텔, 송도컨벤시아 등 주변 업무 · 상업시설의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다.

■ 송도 중앙공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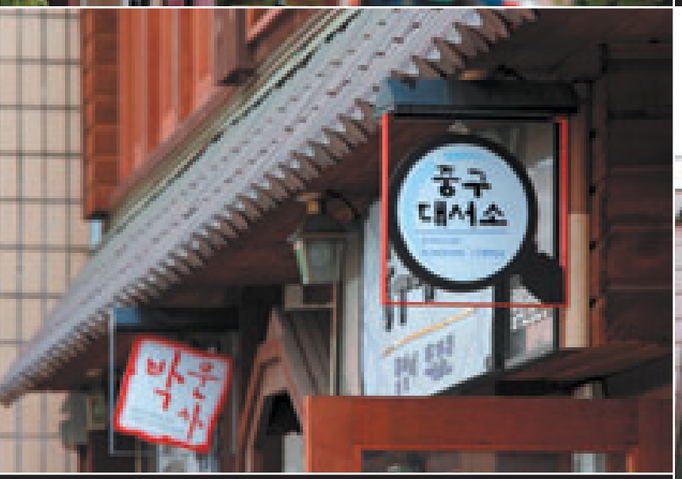
- **위치** : 송도국제업무단지 1공구 내
- **면적** : 40만5천24㎡
- **사업비** : 2천억원
- **사업기간** : 2007년 2월 착공, 2009년 6월 완공 예정
- **주요 특징** : 임해 매립공원으로 최대 면적 / 우리나라 최초의 해수공원 / 우리나라 공원 공사비 규모로 역대 최고 / 다양한 학습과 문화 체험이 가능

Zoom in |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 인천**

도시를 메이크업하다

간판이 달라지고 있다. 아담한 사이즈에 작고 간결한 글씨체, 은은한 컬러와 자연스러운 여백으로 표정없는 도시의 풍경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

글 ·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간판, 트랜스폼하다

도시의 거리는 간판에게 점령당한 지 오래다. 눈을 어지럽히는 현란한 색상과 디자인, 위압감마저 느껴지는 커다란 몸집… 저마다 눈에 띄고 싶어 안달 난 간판들이 건물을 뒤덮고 있다. 간판이 제 기능을 잃고 거리의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사정은 우리시도 마찬가지다.

인천 지역의 간판은 지난해 9월 기준 총 27만6천900여 개이며 이 가운데 불법 간판은 15만5천157개로 전체 간판의 56%를 차지한다. 시는 현재 한 사업소당 하나의 간판을 설치하기를 권하고 있으며 최소 세 개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가로형 간판의 경우 세로폭은 창문과 창문폭 80%, 가로폭은 건물폭 80% 이내로, 또 돌출간판은 4층 이상의 건물에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불법 간판은 법에서 정한 수량과 규격 등을 어기고 있으며, 설령 법규에 맞다 하더라도 건물과 어울리지 않는 디자인으로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다.

하지만 지금, 간판이 달라지고 있다. 전시장을 방불케 하듯 즐비하게 늘어서 있던 간판이, 도시와 조화를 이루며 아름답게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간판은 도시의 미관을 창조하는 하나의 작품으로 진화하고 있다.

Clean Sign Start!

우리시는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과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개최를 앞두고 명품도시에 어울리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 정비 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름 하여 '클린 사인 스타트(CSS : Clean Sign Start)' 사업으로, 오는 2010년까지 불법 광고물을 100% 바로잡아 도시를 아름답게 가꿀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6월부터 '불법광고물 일제 자진 신고기간'을 정해 12월 31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기간 동안 시는 사업소에 불법 광고물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해, 정비에 동참하는 업주에게는 행정처분을 유보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신고 기간이 끝나는 금년 말 이후에는, 강제철거와 영업취소요청 등 불법광고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간판은 내리고, 작품을 건다

단속 위주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간판 정비사업에 시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지난 7월 25일 송도국제도시 갯벌타워에서 '아름다운 옥외광고문화 조성 협력 양해각서' 체결식이 있었다. 체결식에는 우리시 공공기관과 기업, 민간협회 등 옥외광고물 관련 25개 단체가 참여해 '아름다운 간판 달기 운동'에 힘을 합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처럼 민관이 간판 정비사업에 협력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로, 우리시가 추진하는 CSS 사업에 큰 힘을 실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앞으로 이들 단체와 함께 아름다운 간판의 중요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광고주와 광고제작업자의 교육을 지원해 광고물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을 계획이다.

아름다운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든다

우리시는 명품도시에 걸맞은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CSS 사업과 함께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해 각 군 · 구 11개 지역 9.6㎞ 구간 3천800여 개 간판을 대상으로 96억원을 들여 간판시범정비 사업을 진행한다.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대상 지역은 ▲중구는 동인천역사 주변과 삼치거리 800m ▲동구는 송림로타리에서 재능대학입구 270m ▲남구는 주안역 앞 미추홀길 300m ▲연수구는 연수구청 앞길에서 BYC빌딩 주변 590m ▲남동구는 신세계 사거리에서 예술회관역 사거리 1.5㎞ ▲부평구는 부평로 일원 600m ▲계양구는 문화의길 일원 800m ▲서구는 서구청 주변 상가 580m ▲강화군은 강화대교에서 강화군청 3㎞ ▲옹진군은 선재대교에서 영흥대교 1.2㎞ 구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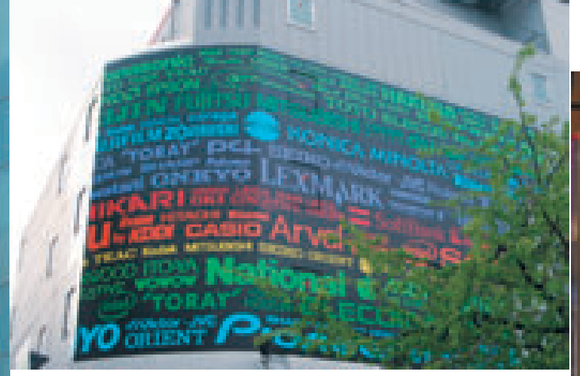
간판이 아름다운 인천의 거리

간판은 지금 변신 중! 우리시는 CSS 사업과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매력적인 도시 경관을 창조하고 있다. 간판이 아름답게 조성된 인천의 거리로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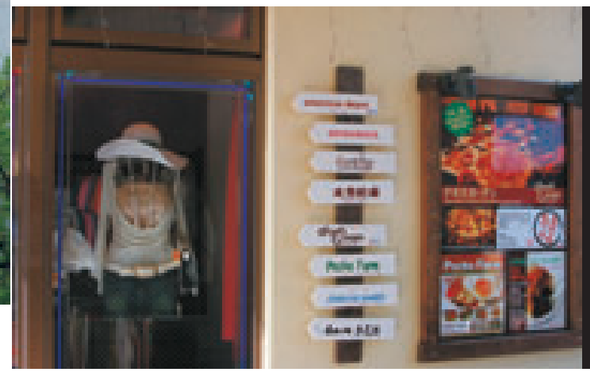
| 중구청 앞, 역사문화의 거리 | 작고 간결해 눈에 더 띄네~

중구청 앞 '역사문화의 거리'에 들어서면 시간은 19세기 말 개화기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곳은 당시 일본인들이 거주하던 지역으로, 차이나타운과 연계해 특색 있는 관광지로 만들고자 작년 3월 일본풍으로 리모델링했다. 황금빛 기와와 고동색 목재로 지어진 건물이 오밀조밀 모여 있는 풍경은 이국적인 정취를 자아낸다. 하지만 무엇보다 시선을 끄는 건 아름다운 간판들이다. 간판은 하나같이 아담한 사이즈에 담담한 색상, 간결한 글씨체로 꾸며져 있다. 또 한 업소당 전면간판과 돌출간판 두 개 정도만 걸려있으며, 이 또한 디자인과 사이즈를 하나로 통일시켜 정갈한 이미지를 풍긴다. 간판은 크고 화려하지 않기에 오히려 시선을 끈다. 천편일률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브랜드의 특성을 잘 살려 낸 개성 있는 디자인으로 업소의 이미지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이다. 중구는 앞으로 3~4년 동안 이 일대 건물 90여 채의 간판을 교체하는 등 거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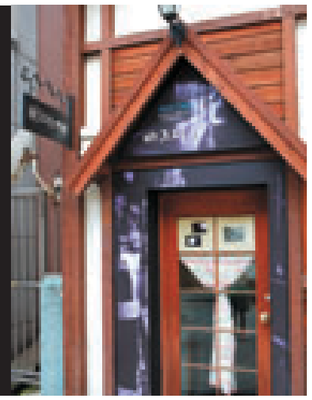
송도국제도시는 우리나라 최초로 간판면적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후쿠오카 시내의 업소들은 하나로 통합된 연립간판을 사용한다. 업소마다 크고 화려한 간판을 내거는 우리의 간판 문화와는 대조적이다.



건물 내 업소들을 한눈에 보여주는 연립간판이 적용된, 오키나와의 상가.



중구청앞 역사문화의 거리의 업소들은 작년 3월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간판을 새롭게 정비했다.

|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 간판의 새로운 모델이 된다

경제자유구역의 거리는 다른 도시와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다. 건물과 거리가 조화를 이뤄 깨끗하게 정돈된 분위기다. 이는 단순히 신도시라는 이유를 떠나 간판이 규격에 맞춰 잘 정비된 덕분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우리나라 최초로 지역 전체를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정하고 간판면적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간판의 면적을 제한하고, 2층 이상의 간판은 입체형으로 아름답게 표현토록 하며, 창문을 이용한 광고와 돌출형 광고를 제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의 간판은 하나하나가 예술작품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름답다. 넘치지 않는 크기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거리와 조화를 이루며 말하려는 바를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전달한다.

경제청은 앞으로도 새롭게 조성하는 개발사업지구의 경관 계획을 수립할 때, 시 광고물 가이드라인을 포함시키는 등 다양한 도시경관 정책을 펼칠 방침이다.

여기서 잠깐!

이것이 품격있는 간판

현란한 색상과 디자인, 들쑥날쑥한 크기로 거리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간판은 이제 그만~ 명품도시에 어울리는 품격 있는 거리를 만들려면 아름다운 간판이 필수요건이다.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우리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옥외 광고물 관련 법에 대해 알아본다.

-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면적총량제를 통해 간판의 면적을 제한, 건물의 여백을 최대한 노출토록 한다. 단, 면적총량제에 대한 인센티브로 총량제 범위 내에서 간판수량의 제한을 완화하고, 4층 이상에서도 가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 건물 2층 이상부터 입체형 문자 등을 의무적으로 적용해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돌출형 간판은 가로형 간판을 갖추지 못한 업소에 한해 2㎡ 이내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 창문을 이용한 광고는 전체적으로 표시면적의 3㎡ 이내, 1층은 창문면적의 20% 이내, 2~3층은 창문면적의 10% 이내로 하고 4층 이상은 금지한다.

간판이 아름다운 세계의 도시

잘 정비된 간판은 곧 도시의 경쟁력이다. 간판은 단순히 기업과 브랜드를 홍보하는 기능을 넘어서 도시의 미관을 새롭게 창조하기 때문이다.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는 아름다운 간판이 있는 세계의 도시로 간다.

| 일본 후쿠오카 | 경관관리 특별도시

일본 규슈의 정치 · 경제 · 문화 중심지인 후쿠오카(福岡 · Fukuoka)는 도시경관사업을 모범적으로 시행하는 대표적인 도시다. 이렇듯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는데 근간이 되는 것은 1985년 제정해 엄격히 운용하고 있는 도시경관조례다. 후쿠오카는 시내에서도 비교적 신도시에 속하는 시사이드모모치, 텐진, 고구쇼, 지하야 등을 '경관관리특별지구'로 지정하고 간판을 비롯한 경관형성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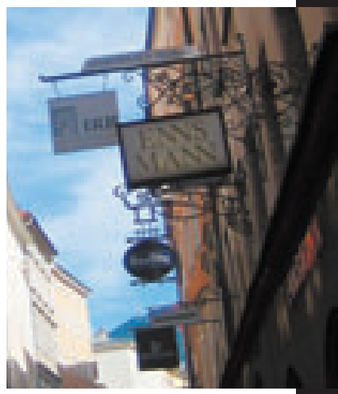
후쿠오카는 가로등에 불법 전단지를 부착하거나 행인에게 배포하는 등 도시경관을 해치면 100만엔(약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등 법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다. 주민들 역시 조례에 명기된 사항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며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 일본 오키나와 | 도시를 아름답게, 활기차게

일본 오키나와섬 중앙에 있는 오키나와(沖縄 · Okinawa)는 우리나라의 제주도와 유사한 관광도시다. 옥외광고물을 도시에 활기를 불러 넣는 경관요소로 인정하고 있으며, 무질서한 간판은 도시의 경관과 시민의 안전을 해치는 요소로 규정짓고 있다. 오키나와는 이를 명확히 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1975년 오키나와 광고물조례를 제정, 옥외광고물에 적절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담기다

유럽의 거리를 걷다보면, 여간해서 간판이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하지만 가게를 찾는 데는 어려움이 전혀 없다.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Salzburg)의 중심가인 게트라이데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쇼핑가로 알려져 있다. 바로 가게마다 내걸린 수공간판들 때문이다. 오랜 역사가 스민 간판은 작고 소박하지만 저마다 독특하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 곳의 간판은 문맹률이 높던 중세시대에 글씨 대신 그림으로 업종을 나타낸 것으로 시작됐다. 이러한 역사는 지금까지 이어져 200여 년 역사의 가게부터 최근 문을 연 현대적인 가게까지 적용돼, 게트라이데거리의 볼거리이자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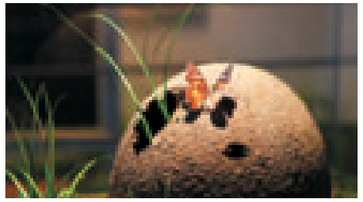


잘츠부르크 게트라이데거리는 아름다운 수공간판으로 하나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

신기루처럼 펼쳐진 북녘의 산하 下

강화도에 가면 두 번 길이 끊긴다. 하나는 바다가 길을 끊어 놓는다. 배를 타지 않고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다. 다른 하나는 이데올로기가 길을 끊는다. 굵은 철책선이 길 곳곳을 끊어 놓고 있다. 강화도는 민족의 한 가슴에 아픈 옹이처럼 박혀 있는 섬이다.

글 · **유동현** 본지 편집장 | 사진 ·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민통선 안의 평화전망대

산과 바다 그리고 너른 들판, 여기에 돌 하나조차 수천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 강화도는 하늘이 내려주신 보물섬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기 위해 강화도를 찾지만, 짧은 물길 하나 건너면 바로 북녘 땅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 사람들은 어쩌면 이런 뼈아픈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고개만 조금 삐죽 내밀어도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을 지척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강화도이다.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는 민통선(民統線 · 민간인 출입통제선) 안에 있는 마을이다. 이곳을 들어가려면 해병대 검문소를 통과해야 한다. 강화평화전망대는 철산리 야산의 중턱에 세워져 있다. 길을 나섰을 때만해도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것 같던 우중충한 하늘이 전망대에 도착하자 해맑아졌다. 북쪽 하늘도 서서히 먹구름이 걷혀지고 있었다.

2층 옥외 전망대에 섰다. 물길을 가운데에 놓고 북한 땅과 마주했다. 남과 북,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공간의 왼편으로는 예성강이 흐르고 오른편으로는 임진강과 한강이 흘러들어 서해로 내려가기 전에 전망대 앞에서 소용돌이치며 합수가 되었다. 물은 그렇게 매일 만나고 있었다.

북한 땅과 가장 근접한 거리는 불과 1.8㎞. 소리라도 지르면 전달할 수 있는 거리이다. 사람 사는 곳은 어디든 다 똑같은데 그쪽을 보자마자 금세 묘한 기분에 휩싸였다. 물길 너머의 땅도 한창 늦여름을 맞고 있었다. 논과 밭은 온통 녹색 천지였다. 다만 납작 엎드린 건물들은 무채색 일색이었다.

뜨거운 여름 햇살 아래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 혹시 신기루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 움직임을 보고 싶었다. 옥외 전망대에 설치된 고성능 관광용 망원경에 눈을 댔다. 500원짜리 주화가 망원경 몸 속으로 땡그렁하며 들어가자 북녘의 산하가 더 가깝고 생생하게 눈앞에 펼쳐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드디어 정지화면이 동영상으로 변하면서 움직임도 보였다. 논 사이를 걸어가는 사람, 자전거 탄 사람, 집 앞에서 잡일 하는 사람… 눈 앞에 북한의 일상이 그대로 펼쳐졌다.

맨눈으로 보이는 송악산 자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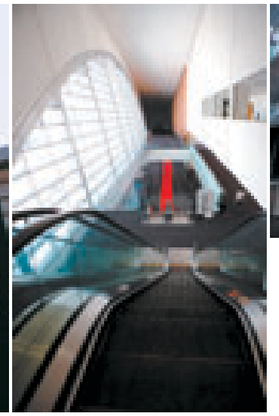
반세기가 넘는 세월 속에 전쟁의 포연이 가득했던 비무장지대(DMZ)는 지금 평화와 희망을 심어주는 땅으로 변하고 있다. 분단의 현장은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이며 관광상품으로 변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9월에 개관하는 강화평화전망대는 경쟁력 있는 안보관광지이다. 비무장지대 근처에 있는 여러 곳의 전망대에 비해 북녘 산하를 또렷하게 볼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맨눈으로도 북한의 마을과 북한인들의 일상생활 그리고 송악산 등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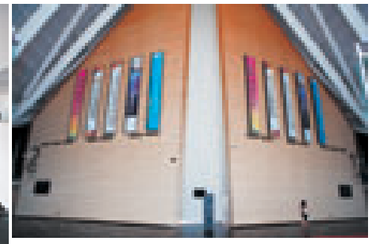
강화평화전망대는 9천975㎡ 부지에 지하층과 지상 4층으로 지어졌다. 1층에는 강화특산품과 북한의 특산물 등을 판매하는 특산품 판매장과 식당, 게스트룸, 통일염원소 등이 있다. 2층에는 고성능 망원경이 설치된 옥외 전망대가 있고 전쟁의 참상과 흔적을 볼 수 있는 홍보전시관과 한국전쟁 당시의 배경과 발발과정 등의 영상물을 볼 수 있는 영상룸이 마련돼 있다. 3층에는 개풍군과 연백군의 지형 모형물이 있는 전망시설과 흐린 날씨에도 영상을 통해 북한 전경 등을 볼 수 있도록 스크린 시설이 설치돼 있다. 지하층과 4층은 군부대 전용시설이다.

한반도 산맥에 세계를 전시한다

길고도 험난한 여정이었다. 지난 2005년 3월 터파기 공사를 시작한 송도컨벤시아가 8월 1일 태백산맥을 닮은 웅대한 위용을 세상에 공개하고 준공식을 가졌다. 10만2천166㎡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세워진 송도컨벤시아는 세계의 전시문화를 선도하며, 송도의 심장부인 국제업무단지의 핵심역할을 하게 된다.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인 NSIC(미국 게일사와 포스코건설 합작사)가 1천500억원을 들여 지은 컨벤시아는 국제회의장 및 세미나실, 전시장 등을 갖추고 있다.

글 · **정경애**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1 | 2 | 3

1. 태백산맥을 닮은 컨벤시아의 외형은 현대적인 미를 자랑한다.
2. 지상 4층까지 편리하게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
3. 연간 180회의 국제회의와 30회의 전시회가 열릴 예정이다.

친환경, 그린빌딩으로 친근하게

컨벤시아는 친환경 설계를 자랑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그린빌딩 인증을 받았다. 건설 폐자재와 절약형 수도꼭지를 사용하고 주차장과는 별도로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는 등 친환경 빌딩을 만들기 위해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했다. 컨벤시아의 외관은 현대적이고 사이버적인 이미지이지만 실내로 들어서면 사뭇 다른 느낌이다. 다른 센터들이 대리석에 반짝반짝 광택을 내서 먼지 한 올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위압감을 주지만 컨벤시아는 좀 다르다. 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일부러 광택 작업을 하지 않았다. 회의실도 모던한 느낌의 외양과는 다르게 원목 느낌의 마감재를 활용해 자연스런 느낌을 강조했다. 전체적으로 컨벤시아는 모던, 사이버 느낌의 아웃테리어와 자연, 편안한 느낌의 인테리어가 상반된 디자인이 특징이다.

유 컨벤션 시스템으로 편리하게

컨벤시아의 다른 특징은 유비쿼터스 환경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개발되어 상용화될 유비쿼터스 환경을 고려해 위성 무선 통신망으로 감싼 유 컨벤션(U-Convention)설비 환경을 조성했다. 유 게이트(U-Gate)는 전자 출입카드다. 참가자들이 출입카드만 갖다 대면 다른 확인 절차 없이 회의실로 입장할 수 있다. 또 U-파킹 롯(Parking Lot)은 LED전광판을 통해 빈 주차공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회의 때 마이크가 켜진 발언자에게 카메라가 자동으로 움직여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자동음성 추적 장치나 6개로 나뉜 대형 스크린에 CD, DVD, 인터넷, 라이브캠 등에서 나오는 화면과 소리 등의 최첨단시설은 유비쿼터스로 가는 첫 걸음이다.

송도컨벤시아의 운영은 인천관광공사에서 맡는다. 공사는 컨벤시아가 다른 수도권 전시장보다 전시장의 규모는 작지만 앞으로 2, 3단계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교통이 편리하고 지리적 조건이 좋기 때문에 이러한 잇점을 충분히 살려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센터의 지리적 접근성을 고래해 볼 때,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들의 회의나 해외 지방자치단체간의 회의가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방 및 인근 기초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회의를 흡수하고 유치할 것이다. 또 인천의 4대 전략사업인 IT, BT, 로봇, 물류 등으로 전시를 차별화시켜서 브랜드 있는 전시를 유치하고 지역 컨퍼런스와 연계시켜 전시에 국한되지 않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제회의, 전시 줄줄이~

관광공사는 컨벤시아가 준공된 8월부터 공식 개관식이 있을 10월까지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8월 말에 열린 인천광역시치과의사협회 총회를 시작으로, 9월에는 국제악기 전시회인 '인천 뮤직코리아 2008(Incheon Music Korea 2008)'이 3일부터 6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또한 인천환경기술전 연계회의도 9월말에 계획돼 있다. 공식 개관한 10월 이후로는, 2008 인천국제물류산업전시회 이외에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에 맞춰 2009년 아시아태평양도시정상회의, 2009년 10월 인천국제물류산업전시회 등이 열리는 등 올해 22건, 내년 29건 등이 예약돼 있다.
운영을 맡은 인천관광공사는 국제회의 및 기업회의, 세미나를 연간 180회 이상 유치하고 전시회는 30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 전시 · 컨벤션 개최예정 현황

songdo convensia

연도	구분	기간		행사명
2008	컨벤션	8월	31일(일)	인천광역시치과의사협회총회
		9월	3(수)~6일(토)	인천국제악기전 연계회의
			20일(토)	JCI총회
			29(월)~10월2일(목)	인천환경기술전 연계회의
		10월	7(화)~ 10일(금)	2008 인천국제물류전 연계회의
			14(화)	인천여성지도자연수회
			13일(월)	법정관련회의
			16일(목)	인천자영산업계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제회 국제세미나
			16일(목)	국제공항 · 항만산업 및 보안산업 전시회 관련회의
			21일(화)	제8회 환황해 경제기술 교류회의
			23(목)~24일(금)	대한금속재료학회 학술대회
			31일(금)	경제자유구역 활성방안 국제회의
		11월	7(금)~8일(토)	2008학교도서관대회 연계회의
			12(수)~14(금)	한국폐기물학회 총회
			13(목)~14일(금)	한국용접접합학회 추계학술대회
			14일(금)	ITC2008 연계회의
			18(화)~19일(수)	한국생산기반기술 시상식
			29일(토)	JC특우회
	전시	8월	31일(월)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학술대회(기자재 전시회)
		9월	4(목)~6일(토)	인천국제악기박람회
			29(월)~30일(화)	2008인천 · 경기서부권일자리 박람회(가칭)
			29일(월)~10월2일(목)	인천환경기술전
		10월	7(화)~10일(금)	인천국제물류산업전시회
			15(수)~17일(금)	국제공항항만산업 및 보안산업전시회
			21(화)~24일(금)	인천자동차부품전시회
			30일(목)~11월2일(일)	제회 인천 · 경기임산물박람회/동시행사어린이교육용품박람회
			31일(금)~11월5일(수)	인천국제디자인페어
		11월	7(금)~8일(토)	2008 전국학교도서관대회
			13(목)~15일(토)	2008 인천국제정보산업전시회
2009	컨벤션	5월	20(수)~24일(일)	2009 SKAL 아시아 총회
			미정	제1회 국제웰빙박람회
		6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전국학술대회
		7월	9(목)~12일(일)	아시아태평양관광학회(APTA) 총회
		8월	7(금)~14일(금)	대한민국과학축전 연계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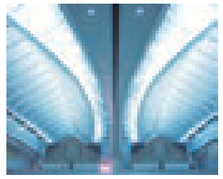
연도	구분	기간		행사명
2009	컨벤션	8월	7(금)~9일(일)	도시재생국제심포지엄
			9(일)~14일(금)	세계초고층건축제전
			16(일)~22일(토)	UN환경포럼
			16(일)~22일(토)	세계도시물포럼
			16(일)~22일(토)	청정에너지전문가 그룹회의
			16(일)~22일(토)	강의날대회
			24(월)~30일(일)	인천국제정보산업전 연계회의
			25(화)~29일(토)	아시아전시컨벤션CEO포럼
			31일(월)~9월5일(토)	인천국제악기전 연계회의
			31일(월)~9월3일(목)	뇌과학컨퍼런스
			31일(월)~9월4일(금)	세계조경가협회 아태지역총회
		9월	6(일)~12일(토)	인천국제물류산업전 연계회의
			13(일)~18일(금)	2009 아태도시정상회의
			13(일)~18일(금)	부동산투자박람회 연계회의
			22(화)~26일(토)	국제도로교통박람회 및 학술대회
			27(일)~30일(수)	통신정보기술국제심포지엄
		10월	5(월)~9일(금)	국제상하수도전시 연계회의
			5(월)~10일(토)	국제항공연맹연차총회
			12(월)~16일(금)	세계지식포럼
			18(일)~22일(목)	세계통신에너지총회(INTELEC)
			24(토)~30일(금)	세계한상대회
		11월	미정	2009 한국컨벤션산업전
	전시	1월	16(금)~18일(일)	인천결혼상품전(춘계)
		3월	미정	국제건강웰빙박람회
		8월	9(일)~13일(목)	2009 대한민국과학축전
			18(화)~21일(금)	인천국제환경기술전
			26(수)~29일(토)	2009 인천국제정보산업전시회
		9월	2(수)~4일(금)	인천국제악기박람회
			8(화)~11일(금)	2009 인천국제물류산업전시회
			23(수)~26일(토)	2009 국제도로교통박람회
		10월	7(수)~10일(토)	국제상하수도전시회
			19(월)~22일(목)	2009 세계통신에너지총회 관련 전시회
			미정	인천국제자동차부품전시회 / 세계한상대회
		11월	4(수)~6일(금)	제회 국제공작기계 · 공구 및 금형 · 금속가공설비산업박람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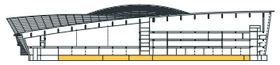
컨벤시아 꼼꼼히 들여다 보기

songdo convensia

전시장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한 최첨단 시설의 국제 전시장이다. 유틸리티 Wall을 설치해 2개실로 나눠 사용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3mx3m 면적의 450부스를 설치할 수 있어 전문전시회, 국제회의 연회, 공연행사 등 각종 이벤트 행사가 치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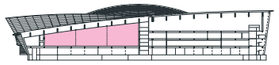




Exhibition Hall

연회장

각종 이벤트 행사를 위한 극장형 연회장은 1천806㎡로 최대 2천명이 모여서 연회를 즐길 수 있다. 8개 국어로 동시통역이 가능하도록 통역실이 설치돼 있어 국제회의, 연회, 패션쇼 등 각종 이벤트가 열릴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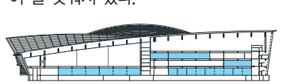
Premier Ballroom

외 형

컨벤시아의 설계는 세계적인 건축 설계 업체인 KPF(Kohn Pederson Fox Architects)가 맡았고 범건축이 같이 했다. 외관은 5개의 봉우리가 우뚝 솟은 태백산맥을 형상화했고, 한국의 미를 잘 살리고 최첨단 시설에 걸맞은 세계적인 디자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철골을 조립해 둥글게 마는 형태로 지었기 때문에 기둥이 하나도 없이 철골이 땅 속에서 이어져 건물을 지탱하는 첨단 건축기술이 도입돼 국내 건축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회의실

면적은 2천286㎡로 23개의 회의실을 갖추고 있다. 다양한 규모, 목적에 부합하는 다기능 회의실로서 행사규모에 맞게 회의실의 통합과 분할이 가능하다. 무선인터넷, 음성인식 카메라 등 유비쿼터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Meeting Room

주차장

지상 1층에 208대의 주차면이 확보돼 있고, 지하 1층에 392대 주차가 가능해 모두 600대를 주차할 수 있다. 주차장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입된 U-파킹 롯(lot)을 설치했다. LED전광판에 빈 주차공간이 안내돼 주차할 곳을 쉽게 찾을 수 있다.

Parking Space

미래 세계를 미리 체험한다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의 개막이 불과 1년도 채 안 남았다. 미래도시의 비전을 제시하고 인천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킬 인천세계도시축전에는 재미와 감동을 주는 이벤트와 전시, 국제 컨퍼런스 등 80여개의 다채로운 행사가 매일 열린다. 프랑스의 세계적인 석학 자크 아탈리와 레스터 브라운 지구환경정책연구소장 등 세계적인 인사들을 비롯해 700만명의 국내외 관람객이 참석할 '도시올림픽'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주요 콘텐츠를 미리 들여다본다.

글 · **박세훈**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조직위 미디어홍보팀 부장

첨단기술관 …인천은 대한민국의 얼굴

'거침없는 인천의 미래, 인천이 뛰고 있다'는 힘찬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첨단기술관은 세계도시축전 주행사장의 랜드마크다. 3천305㎡의 넓이에 1, 2관으로 나뉘어진 첨단기술관에서는 각종 첨단미디어 기술을 이용한 미래형 디스플레이로 관람객의 눈을 사로잡는다. 관람객들은 주제 영상물을 감상하기 전 Pre-Show를 통해 홀로그램 기법의 특수영상으로 촬영한 환영 인사와 상세한 관람안내를 받게 된다.

'인간과 도시, 도시와 미래이야기'라는 10분 분량의 주제영상물은 고화질의 입체 애니메이션을 기본으로 한 첨단 입체영상 촬영기법이 동원된다. 앞으로 전개될 인간과 도시의 이상적인 상생의 모습을 그려낼 주제영상물은 인천이 어두웠던 과거의 모습을 반세기만에 극복하고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전개된다. 관람객들은 10년 후 인천의 모습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Robot Science 미래관–로봇은 또 다른 사람

로봇은 미래의 '인간'이다. 세계도시축전은 로봇이 치르는 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로봇과의 축구, 로봇과의 서바이벌 게임, 심지어는 로봇을 통해 하와이의 여름해변을 즐길 수 있다. 이처럼 로봇의 미래를 들여다 볼 수 있는 Robot Science 미래관에서는 '대한민국과학축전'과 '세계로봇월드컵'이 열려 로봇의 미래 활용과 로봇 축구황제를 확인할 수 있다.

지능형로봇경진대회에서는 인간과 똑같은 로봇의 행동논리를 이해할 수 있고 '로보원'을 통해 로봇끼리의 격투기를 관람할 수 있다.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EBS 로봇파워'에서는 로봇끼리 전투를 통해 승부를 가르는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이어져 관람객들의 손에 땀을 쥐게 하게 한다.

이외에도 인천의 전략적인 로봇산업을 확인하는 전시회와 '휴머노이드' 경기 등이 뒤를 잇고 로봇 조형물과 인포메이션, 로봇과의 휴게공간이 마련된다. 관람객들은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을 통해 로봇과 친해지며 좋은 추억을 간직하게 될 것이다.

지능형 거리–유비쿼터스 세계를 걷다

주행사장의 첨단 존은 영화 속의 거리다. 보도블록도 사람의 무게를 알려주고 비가 와서 미끄럽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한다. 심지어 연못도 사람을 알아보고 분수로 반가움을 표시하며 한여름의 더위를 가시게 한다. 첨단기술관과 Robot Science 미래관 사이에 조성된 지능형 거리의 모습이다.

지능형 거리 내에서는 관람객들이 휴대폰과 노트북을 이용하기가 자유롭다. 지능형 거리를 걷는 것 자체가 이미 첨단 인간이다. 지능형 거리 한가운데는 '디지털 낙서판'이 설치된다. 관람객들은 이곳에서 만날 사람과의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고 다른 관람객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다. 미디어보드와 미디어사인은 이정표 역할뿐 아니라 디지털 영상을 통한 캠페인 등 교육기능까지 갖게 된다. 지능형 거리에서 인천과 자매결연을 한 해외 유명도시의 거리를 볼 수 있고 이벤트 영상을 통한 경품추첨 등 지능형 거리 자체가 '도로 위의 해결사'로 통하게 된다.

행사장은 디지털 안전지대

처음 방문하는 관람객은 입장과 동시에 행사장 규모에 놀랄지 모른다. 하지만 안내서가 없어도 당황할 필요없다. 행사장 곳곳에 배치된 키오스크와 디지털 정보안내기의 안내를 받으면 된다. 주행사장 내에서 열리는 행사정보는 물론 개인에게 맞는 추천관람코스, 교통과 숙박, 식당, 날씨, 생활정보까지 손가락 하나로 모두 알수 있다.

'주행사장에서 아이는 안전하다?'. 행사장 운영본부는 관람하는 모든 아이에게 전자태그(Tag)를 대여해준다. 미아가 발생하면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아이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부모들은 편안히 행사장을 관람할 수 있다. 노인과 장애인도 행사시간 동안 대기하는 응급구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안심하고 관람을 즐길 수 있다. 80일 동안 '인천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세계의 미래'가 바로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에 담겨있다.

주는 사람 '싱글' 받는 사람 '벙글'

휘영청 밝은 달에 마음마저 밝아지고, 넉넉한 인심에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명절이다. 하지만 선물 준비에 머리가 아프다는 사람들도 많은 때가 바로 요즈음. 올해 명절엔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로 선물보따리를 채워보자. 주는 이의 마음과 정성에 받는 이의 감동은 떼 논 당상이다.

글 · **정경애**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찐득한 액체에 영양이 가득 슈퍼 다시마

해마다 8월에서 9월이면 인천 앞바다는 온통 검은 빛을 띤다. 검푸른 바다물결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주인공은 바로 다시마. 옹진군 해역은 이제까지 다시마의 주산지로 알려진 남해안과 비교하면 서해 최북단이라는 지리적 요건으로 1년 평균 2~3℃가 낮아 한 여름에도 녹음현상을 보이지 않는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일년 내내 다시마를 볼 수 있는 천혜의 다시마 양식 환경을 갖고 있다. 게다가 계속 되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온도 상승으로 다시마 서식지가 점차 북상할 것으로 보인다. 옹진군에서는 앞으로 10년 안에 옹진군을 다시마 양식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야심 찬 포부로 백령, 소청에 다시마 건조, 가공시설을 지원했고 덕적도에도 건조시설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해양환경의 차이로 옹진군에서 나고 말린 다시마는 남해안에서 생산된 다시마보다 염중량이 30% 가량 더 무겁다. 다시마 품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두께 또한 일반적인 고품질 다시마보다 두 배를 초과하는 초우량 다시마다. 일반 다시마보다 월등한 크기만큼 바다의 깊은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초우량 다시마는, 모든 것이 뛰어나다는 의미로 '슈퍼 다시마'로 불리며 명품 다시마로 인정받고 있다.

다시마는 주로 국물을 내는 용으로 많이 애용되지만 최근에는 다시마의 영양성분이 알려지면서 웰빙 식품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다시마에 포함된 성분 중 후코이단은 암 치료에 효과가 입증되면서 일본에서는 음료수로 개발되어 현재 시판 중이다. 다시마를 자르면 나오는 끈끈한 액체인 알긴산은 천연 식이섬유로 변비해소, 혈압조절 등 다이어트 식품 소재로 각광을 받고 있다.

윤기가 좌르르 밥 맛 좋아 인천쌀

인천 쌀은 사실 좀 서럽다. 예전엔 '경기미'라는 이름으로 날개 돋친 듯 '상한가'를 구가했지만 이름표가 '인천'으로 바뀌면서 인기가 예전만 못한 때문이다. 하지만 이젠 사정이 달라졌다. 친환경 쌀로, 맛과 영양이 풍부한 쌀로 특화시키면서 다시 전성기를 맞고 있다.

청정 섬 강화에서 나는 쌀은 예부터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던 귀하신 몸이었다. 맑은 물, 기름진 땅, 싱그런 바람이 바로 '강화섬쌀'의 비밀이다. 고품질 벼 종자를 선택해 추청(아끼바레), 고시희까리 등을 선택해 계약 재배한다. '청정누리 교동섬쌀'은 섬 속의 섬 교동도 비무장지대(DMZ)에 생산된 쌀이고 '기능성 순무쌀'은 순무의 고장답게 최고의 미질을 자랑하는 강화섬쌀에 순무엑기스를 가공해서 첨가한 기능성 쌀이다.

도심 속 너른 농토가 펼쳐진 계양구는 쌀 맛 좋기로 소문난 김포평야와 이웃하고 있다. 계양친환경쌀작목반에서는 우렁이농법과 당밀농법으로 생산한 친환경쌀이 자랑이다. 친환경쌀은 '엄마가 고른 쌀'과 '황어쌀'이라는 이름으로 소비자들과 만나고 있다. 농약 대신 잡식성 왕우렁이의 특성을 이용해 잡풀을 없애고 설탕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잔여물인 당밀을 논바닥에 분해시켜 잡초발생을 억제 시키는 등 친환경농법으로 생산한 쌀이다. 또 '계양특미'는 15년 전 부터 사용해 온 대표 브랜드로 김포평야에서 생산되는 일반미와 같은 1등품 벼로서 한강 상류의 청정수를 사용해 미질과 밥맛이 좋은 쌀이다.

이밖에 남동구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남동미'를 브랜드로 내놓고 있다.

달다, 맛나다 인천표 과일

명절 선물에 과일이 빠질 수 없을 터. 가을에 인천에서 나는 대표 과일로는 섬포도와 남동배가 있다.

옹진군의 대부분의 섬에서는 포도가 난다. 시도, 신도, 장봉도, 연평도, 자월도, 영흥도, 선재도 등에서는 자연환경 속에서 손때 묻지 않은 채 자연의 일부분으로 자란 섬포도를 생산한다. 옹진군의 섬은 땅이 붉은 점밀인 황토로 돼 있다. 그 토양에 해양성 기후의 영향으로 봄이 길고 여름이 시원한데다 쾌청한 가을을 보낸다. 옹진의 섬포도는 뜨거운 여름에 생산하지 않고 일교차가 큰 늦은 가을철에 수확하기 때문에 당도가 높고 향기 또한 짙다. 게다가 거친 해풍에 두꺼워진 껍질 탓에 신선도 유지 기간이 길어 저장성이 좋아 가을이면 포도향이 온 섬을 뒤덮는다.

남동구 수산동은 배농가가 여럿 자리 잡고 있어 봄이면 새하얀 배꽃으로, 가을이면 달큰한 배 향기로 오가는 이들의 눈과 코를 행복하게 한다. 남동구에서는 끈기 있는 질찰흙 토양과 밤낮의 온도차이, 그리고 소래포구의 해풍으로 특유의 향을 갖고, 다른 지방에서 재배되는 것보다 당도가 2도 정도 높은 꿀같은 '남동배'가 난다. 특히 남동배작목반에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저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친환경 배를 생산하고 있고 수정산야영농법인 역시 친환경 배를 생산한다. 또 남동하나로배작목반은 품질개발을 통해 전국 제일의 명품 배를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명품 배는 생산이력제 인증과 친환경인증에 주력해 믿고 안심하며 먹을 수 있는 배를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남동구 수정산야 배

건강도 챙기고, 맛도 챙기는 웰빙 건강 식품

강화의 약쑥은 '사자발쑥'이라고 불린다. 잎과 뿌리, 줄기에 각각 다른 효능을 가진 약액성분을 갖고 있어 각종 질병 예방과 치료제로 널리 쓰이며 서울 제기동의 경동 시장에서도 제일로 친다. 강화약쑥은 약재 외에도 뜸쑥과 쑥환, 쑥분말, 쑥차, 쑥음료 등으로 상품화 되어 일반인들에게 판매되고 있다.

강화에서 나는 고구마는 다른 지역 고구마와 달리 속이 노랗고 당도가 높으며 소화도 잘 돼 속이 편안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속이 일반 고구마 보다 더 짙은 노란색을 띠기 때문에 속노랑 고구마, 호박고구마, 꿀고구마 등 갖가지 이름으로 불렸다. '속노랑고구마'라는 이름은 강화주민들 뿐만 아니라 강화를 다녀간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나면서 인기를 얻게됐다. 그러던 중에 1998년 5월에 강화 속노랑고구마 작목회가 브랜드화를 위한 상품명을 고민하던 끝에 '속노랑고구마'라 정식 이름을 붙였다.

강화 속노랑고구마는 강화도 특유의 서해 해풍을 맞고, 풍부한 일조량을 받고 자란 덕분에 맛과 영양이 뛰어나다. 속노랑고구마는 구워야 제맛이 나는데 제대로 구우면 송진같은 꿀물이 나온다. 속살이 노랗고 섬유질이 풍부해 촉촉하고 달콤한 맛이 입안을 행복하게 한다.

한편 백령도의 백색고구마는 백령도 토질에 맞게 변형된 토종 식품이다. 땅에서 나오는 과일이라 하여 지과(地果)라고도 불린다. 백령도의 순수한 청정지역에서 신선한 바닷바람과 맑은 공기를 받고, 콩돌자갈과 규토토가 섞인 물빠짐이 좋은 땅에서 잘 자란다. 백색고구마를 햇볕에 10일 이상 잘 말린 후 삶으면 고구마가 홍시처럼 말랑말랑하게 돼 백령도 고구마의 제맛을 느낄 수 있다. 또 말리지 않고 삶아서 먹으면 밤고구마의 맛이 일품이다.

이 밖에

강화 화문석은 다른 지방에서는 거의 나지 않는 순백색 왕골로 만들기 때문에 결이 곱고 전통문화의 멋과 우아함이 서려있다. 땀 흡수에 좋고 통풍이 잘돼 여름철이면 강화도는 화문석을 사려는 이들의 방문이 이어진다. 큰 돗자리 말고도 꽃삼합, 화방석 등 앙증맞은 제품들은 외국관광객들에게 특히 인기를 끈다.

강화인삼은 고려인삼의 원산지로 이미 700여 년 전부터 재배가 시작됐다. 인삼을 키우기 위한 기후와 토양은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강화는 인삼 재배의 최적지이다. 강화도는 특히 6년근 인삼이 유명하다. 강화 인삼을 사려면 강화인삼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강화인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수십 개의 업체가 모여 있어서 편리하게 보고 살 수 있다.

순무는 겨자향에 인삼맛을 내는 쌉싸름한 무이다. 특히 영양가 높은 채소로 알려져 있어 예로부터 강동육미의 하나로 임금님께 진상했던 음식이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오장을 이롭게 하고 간 기능 증진에 도움을 주어 간장질환에 이롭고 숙취해소 등에 뛰어나다고 소개돼 있으니 건강 음식이 따로 없다.

서해안 북쪽의 백령도와 대청도의 청정해역에서는 5월 초순부터 6월말까지 까나리가 많이 잡힌다. 이것을 천일염과 잘 버무려 밀봉한 다음 해가 잘 드는 해안에서 1년 이상 자연 숙성시킨 후 순액을 거른 것이 옹진섬의 까나리 액젓이다. 김치를 담글 때 배추 한포기에 액젓 4큰술을 넣고 양념을 하면 깊은 맛이 난다.

강화순무

▣ 인천의 특산물

품목	생산지	특징	구입처
다시마	옹진군 백령도, 소청도	염중량이 무겁고, 두께가 고품질다시마의 2배	소청영어조합법인 011-9349-6171 백령바다영어조합법인 017-257-1003
쌀	강화군	고품질 벼 종자로 최고의 미질 자랑	강화농산물직판장 934-0901~4, 강화군농업경영인협회 933-5283, 강화장터(www.ghmart.com), 강화섬쌀(www.ganghwassal.com)
	계양구	친환경, 고품질 특미	계양농협 515-1611(www.gyeyangnh.com)
	남동구	고품질의 남동미	남동농협 460-6641
섬포도	옹진군	당도가 높고 향기가 짙음 껍질이 두꺼워 저장성이 좋음	옹진농협 885-2001, 북도 포도농업인연구회 752-4043, 장봉도 포도농업인연구회 751-8078, 자월도 포도농업인연구회 832-3914, 연평도 포도농업인연구회 832-4414, 영흥도포도농업인연구회 886-7303, 선재도 포도농업인연구회 889-4749
남동배	남동구	당도가 2도 정도 높음 친환경 재배	남동배작목반 461-8526, 수정산야영농법인 461-4396, 남동하나로배작목반 463-7871

품목	생산지	특징	구입처
사자발쑥	강화군	잎, 뿌리, 줄기가 각각 다른 효능을 가져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	인산 약쑥작목반 937-2092, 내리 약쑥작목반 937-5132
속노랑 고구마	강화군	속이 노랗고 섬유질이 풍부하며, 당도가 높고 소화가 잘됨	강화장터 937-9019 (http://www.ghmart.com)
백색 고구마	옹진군 백령도	햇볕에 말리면 홍시처럼 말랑하고, 삶으면 밤 고구마의 맛이 일품	백령농협 836-0880~3
화문석	강화군	결이 곱고 조상의 멋과 우아함이 서려있음, 땀 흡수에 좋고 통풍이 잘됨	고려화문석 933-6911
인삼	강화군	인삼을 키우는 토양이 최적지. 6년근 인삼이 유명	강화고려인삼센터 933-3550
순무	강화군	영양가 높은 채소로 강동육미의 하나	강화순무작목반 최진수 011-323-0173
까나리 액젓	옹진군	청정바다의 까나리를 천일염으로 밀봉해 숙성	옹진군 수산업협동조합 865-2255

Fly Incheon News

경제자유구역에 항공우주산업단지 조성

경제자유구역에 우주태양에너지 발전연구단지 및 항공우주산업단지가 조성된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우크라이나 유즈노예(Yuzhnoye) 국립항공설계소, 홍콩계 투자회사인 LIL 아시아와 '항공우주복합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기본협약'을 지난 8월 19일 체결했다.

러시아가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1945년 설립한 유즈노예 국립항공설계소는 설계부터 엔진 · 부품 제작과 조립 등의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경제청은 유즈노예가 보유한 원천기초기술을 국내기술과 접목해 경제자유구역을 첨단과학 연구 및 교육, 항공우주산업의 현장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경제청은 먼저 1단계로 송도국제도시 4공구나 5 · 7공구 내 2만6천㎡ 부지에 우주태양광에너지 연구시설과 국내외 연구원들을 위한 주거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어 1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2단계로 송도 11공구에 국제 항공우주산업체들을 유치해 항공우주복합산업단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경제청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LIL 아시아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 대상지를 정하고, 투자심사위원회와 시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 453-7114

검단 신도시 확대 지정 1천810만㎡ 개발

우리시가 추가 개발을 요구해 온 검단신도시가 대형 신도시로 개발된다.

국토해양부는 검단신도시 주변 690만㎡를 비롯해 경기 오산 세교지구 등 수도권 2개 지역을 신도시로 개발하는 내용의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발표했다.

검단신도시 주변은 2006년 말 신도시로 지정된 검단신도시 북서쪽으로, 2006년 검단신도시 지정 당시 제외됐었다.

이후 시는 검단지역 일대 1천810만㎡를 신도시로 추가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지난 5월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 · 도지사 회의에서 안상수 시장은 검단신도시의 일괄개발 추진 등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도 했다. 우리시의 적극적인 주장과 맞물려 정부도 민간에서의 도심개발을 통한 주택신규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주택공급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도시를 개발해야 한다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하게 됐다.

한편 우리시는 이와 관련 지난 8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단신도시를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환경도시', '자족형 도시', '에너지 절약형 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시는 대곡천 · 계양천 · 나진포천 등을 이용해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에너지 절약형 도시를 구축키 위해 제로에너지 시범단지를 개발키로 했다. 이어 대학을 유치하고 R&D 벤처타운 등을 조성하는 등 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문의 | 시 개발계획과 ☎ 440-3416

아시아경기대회 새 주경기장 건설 추진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설이 추진된다. 우리시는 문학경기장을 아시아경기대회의 주경기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 새로운 주경기장 건설을 추진키로 했다. 시가 검토한 바에 따르면 문학경기장은 아시안게임 관중 7만명을 수용하기 위해 2만석을 증축할 경우, 리모델링 비용만 2천500억원 가량이 필요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새로운 주경기장을 건설하고, 대회가 끝나면 가변석을 철거해 인천 시내 체육공원에 스탠드로 활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문의 |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 440-4132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도입

우리시가 행정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키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했다. 우리시는 법정처리기간이 2일 이상 90일 이하인 민원 375종을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들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를 지난 8월부터 시범 실시했다. 시는 담당자들에게 기본점수 100점을 주고 법정 기간보다 단축해 처리하면 가점, 초과로 처리하면 감점을 주는 방식으로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 우수 공무원을 시상할 방침이다. 시는 이 제도의 개선방안을 수렴하고 보완한 뒤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 | 시 사회복지봉사과 ☎ 440-2675

송도에 '디지털시티' 사업 추진

경제자유구역청은 세계적인 설계 · 디자인 소프트웨어 회사인 오토데스크와 손잡고 디지털시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송도국제도시 '투모로우시티'에 적용할 계획이다. 경제청은 도시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준공 후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3차원 도시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도시공간에 어울리는 모델을 구축하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에 경제청은 인천도시개발공사, 오토데스크와 함께 이달 말까지 세부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말까지 투모로우시티의 디지털시티 모델 개발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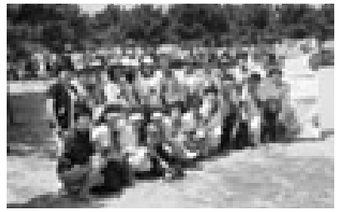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 453-7114

유망중소기업 선정, 지원

우리시는 지역 내 30개 업체를 '인천광역시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 적극 지원키로 했다. 시는 인천상공회의소 등 15개 기관에서 144개 업체를 신청 받아 서류, 현지평가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유망중소기업을 확정했다. 이들 선정 업체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우대지원(금리인하, 지원한도 증액 등)하고, 해외인증 및 규격획득 우선지원, 국내 · 외 전시회 등 판매망 지원, 산학연을 통한 기술지도 등 5년간 우수기업으로 성장, 자립하도록 지원받게 된다.

문의 | 시 기업지원과 ☎ 440-2872

행락지 안전 먹거리 캠페인



우리시는 지난 8일 영종도 을왕리해수욕장과 왕산해수욕장 일대에서 '여름철 행락지 안전한 먹거리 제공 대시민 홍보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는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식품안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여름철 행락지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위생을 관리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캠페인에는 식품위생 관련 공무원을 비롯해 인천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0여명이 참여해 ▲ 부정불량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선별 ▲ 하절기 식중독예방요령 ▲ 여름철 가정에서 지켜야할 식품위생관리 등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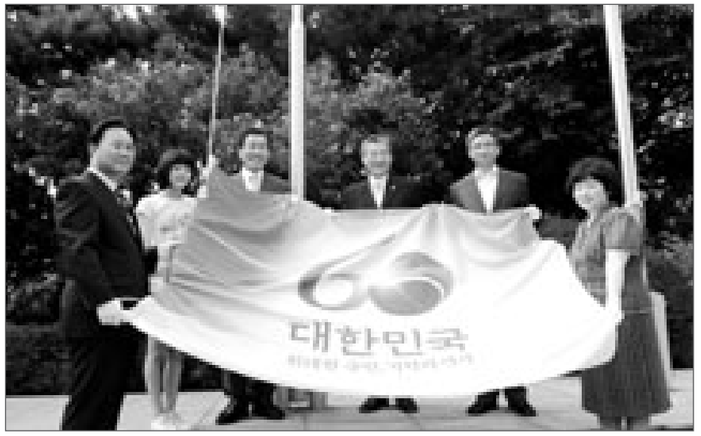
문의 | 시 위생정책과 ☎ 440-2784

인천인구 273만명

우리시 인구가 지난 6월 말 기준 273만 3천59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인 271만40명보다 2만 3천550명이 증가한 수치다. 구 · 군별로는 부평구가 57만 7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남동구 45만 2천명, 남구 42만 2천명, 서구 41만 3천명, 계양구 34만 5천명, 연수구 27만 1천명, 중구 9만 1천명, 동구 7만 4천명, 강화군 6만 7천명, 옹진군 1만 7천명 순이다. 이와 함께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4만9천66명으로 지난해보다 522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 시 법무통계담당관실 ☎ 440-2085

Fly Incheon News



우리시는 대한민국 건국 60주년과 63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지난 8월 11일 시청에서 엠블렘기 게양식을 가졌다.

건국 60주년 엠블렘기 게양

우리시는 대한민국 건국 60주년과 63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지난 8월 11일 시청에서 엠블렘기 게양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안상수 시장과 고진섭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7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인천 시내에서 태극기 나눠주기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선열의 정신을 되새겼다.

문의 | 시 총무과 ☎ 440-2416

세계조경가협회 아 · 태총회 개최

우리시는 한국조경학회와 2009 세계조경가협회(IFLA) 아시아 · 태평양지역 총회 개최를 위한 협약을 지난 8월 11일 체결했다. 총회는 내년 9월 1일부터 4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며 아 · 태지역 12개국 2천명의 조명 설계 · 계획 · 분석가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들 참가자들은 도시재생과 생성, 신도시 및 임해매립지 조경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 시 공원녹지과 ☎ 440-3672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경제자유구역청은 강화군 남 · 북단 과 옹진군 신도, 인천항 주변 등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키 위한 타당성 용역에 들어갔다. 경제청은 강화군 남 · 북단에 남북 물류전진기지와 교육, 바이오산업을 유치하고 신도에 문화, 의료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어 인천항 주변에는 송도국제도시와 청라지구를 연계한 물류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 453-7114

2013년 청라~마곡 급행버스 개통

청라지구와 서울 마곡지구를 연결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20.9㎞ 구간이 오는 2013년 개통될 전망이다. 수도권교통본부는 청라지구와 9호선과 5호선을 함께 환승할 수 있는 마곡지구를 연계하는 방안을 최적의 노선으로 확정했다. 향후 청라~마곡지구 노선이 개통되면 시간당 2만명 가량이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문의 | 시 도시재생2과 ☎ 440-4518

환서해안 고속국도 추진

우리시는 영종도와 강화도, 북한 개성간 총 길이 58.2㎞의 '환서해안고속국도'(가칭)의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계획 구간 중 영종도~신도~강화도 구간 10.9㎞는 민간투자사업방식 등을 통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개최하기 전에 개통하게 된다. 시는 향후 환서해안고속국도 건설계획과 주변 개발계획을 인천시도시기본계획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

2011년 가로녹지 조성

우리시가 2011년까지 244억원을 투입해 38개 도로 54.4㎞에 가로녹지를 조성한다. 시는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남동구 호구포길 1㎞, 비류길 1.4㎞, 부평구 장제로 0.6㎞, 계양구 봉화로 0.5㎞, 서구 봉수대길 0.28㎞ 등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 가로 녹지를 조성한다. 이들 도로의 중앙 안전지대에는 상록수와 낙엽수를 심어 녹지대를 만들 계획이다.

문의 | 시 공원녹지과 ☎ 440-3672

공공시설 공간에 도서관 조성

우리시는 주민센터, 경찰지구대, 종합복지관, 학교 등의 빈 공간에 작은 도서관을 꾸며 시민들이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개 구 · 군별로 적당한 공간이 있는지 조사한 뒤, 연말까지 도서관을 건립하는 계획을 세워 내년부터 추진키로 했다. 한편 시는 이와는 별도로 시내 공공도서관을 확충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현재 16개인 공공도서관을 2013년까지 23개로 늘리고, 2018년에는 46개로 늘릴 계획이다.

문의 | 시 문화예술과 ☎ 440-5842

웰컴 투 인천 · 인천을 방문한 VIP 이모저모

아 · 태도시정상회의 양해각서 교환

안상수 시장과 호주 브리즈번 시 캠벨 뉴먼(Campbell Newman)시장이 지난 7월 31일 시청에서 2009 아 · 태도시정상회의에 대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2009 아 · 태도시정상회의는 인천세계도시축전이 열리는 내년 9월 15일부터 3일간 우리시에서 개최한다. 각국 도시의 정상들이 참여하는 아 · 태도시정상회의로 같은 시기에 열리는 인천세계도시축전의 대외 인지도와 품격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시는 지난해 9월 대만의 가오슝시와의 치열한 접전 끝에 2009 아 · 태도시정상회의 유치에 성공했다.

한 · 중 관광활성화 업무협약

안상수 시장과 닝푸쿠이 주한 중국대사, 장시룽 중국 국가여유국 서울지국 수석대표 일행이 지난 8월 6일 시청에서 한 · 중 관광교류 활성화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두 도시는 협약식을 통해 2009 인천방문의 해와 인천세계도시축전, 2010 상하이도시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협력키로 뜻을 모았다. 한편, 중국 대표단은 이날 협약을 체결한 후 인천대교 건설현장과 송도국제도시, 월미관광특구 등을 둘러봤다. 이어 인천항을 방문, 한 · 중 페리선을 통한 관광객 입출입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며 한중 교류 협력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주한 네팔대사 방문

카말 프라사드 코이랄라(Kamal Prasad Koirala) 주한 네팔대사 일행이 지난 8월 11일 인천을 방문, 안상수 시장을 예방했다. 안 시장은 이날 코이랄라 대사에게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에 네팔 도시와 기업 및 단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코이랄라 대사는 우리시가 지난해 네팔 태권도 선수를 초청, 무료로 훈련을 받게 해 준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인천세계도시축전에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베트남 서기장 일행 방문

이 뱅(Y Veng) 당 서기장을 비롯한 베트남 꼰둠성 지방공무원 연수단 13명이 지난 8월 6일 우리시를 방문했다. 방문단은 이번 연수에서 이창구 행정부시장을 예방하고 두 도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행정부시장은 면담을 통해 인천이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지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과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자매도시 美 버뱅크시 학생 초청

우리시는 자매도시간의 협력을 증진코자 우리시의 자매도시인 미국 버뱅크시의 학생들을 초청,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2일까지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인천투어와 한국투어 등을 진행해 우리시의 발전상과 한국의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또 홈 스테이를 통해 학생들이 한국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이해토록 했다. 작년 8월에도 우리시 학생들이 버뱅크시를 방문, 홈 스테이 등 학생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한 바 있다. 시는 앞으로도 자매도시간의 활발한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주한 브라질대사 방문

첼리나 두 발리 빼라이라(Celina do Valle Pereira) 주한 브라질 대사 일행이 지난 8월 5일 우리시를 방문, 안상수 시장을 예방했다. 이날 빼라이라 대사와 안상수 시장은 두 도시의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 이후 브라질 대표단은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를 방문, 각종 개발사업을 둘러보며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하는 우리시의 발전상을 직접 확인했다.

문의 | 시 국제협력관실 ☎ 440-2852

군 · 구 소식

중구 차이나타운 패루 재설치

중구는 차이나타운 내에 설치된 패루를 철거하고 돌 패루로 다시 세운다. 이는 지난 5월 제1패루가 붕괴한 데 따른 조치다. 구는 우리시의 자매도시인 중국 웨이하이시에서 돌 패루를 기증받아 올해 안에 제1패루를 재설치하고, 내년 중으로 한중문화관 옆 제2패루를 설치할 예정이다.

문의 | 중구청 ☎ 887-101

동구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동구는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민원처리 단축일 수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업무 난이도에 따라 가중치를 차등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문의 | 동구청 ☎ 761-0151

남구 숭의1동 상업지구로 개발

일명 '옐로우 하우스'로 불리는 남구 숭의1동 360번지 일대가 상업지구로 개발된다. 우리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숭의 1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이 구역에는 30층 높이의 주상복합 8개동과 오피스텔, 임대주택 등이 들어서게 된다.

문의 | 남구청 ☎ 887-1011

연수구 한 · 중 청소년 홈스테이 운영

연수구는 우리시 우호도시인 중국 천진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난 8월 8일부터 7일간 한 · 중 청소년 홈 스테이를 운영했다. 연수구를 찾은 중국 청소년 10명은 구청을 비롯해 강화도, 송도국제도시, 인천시립박물관 등을 방문해 우리 문화를 몸소 체험했다.

문의 | 연수구청 ☎ 817-1011

남동구 태양광 LED 가로등 설치

남동구는 지난 7월 31일 만수동 거머리산 등산로 세 곳과 인천도시개발공사 인근 쉼터 한 곳에 태양광 LED 가로등을 설치했다. 이 가로등은 낮엔 태양광에 의해 충전되고 밤이면 센서와 타이머에 의해 자동 점등된다.

문의 | 남동구청 ☎ 466-3811

부평구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 전개

부평구는 추석을 맞아 '추석맞이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을 전개한다. 구는 지난 8월부터 오는 17일까지 사랑의 쌀을 모으기로 하고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및 각 동주민센터에 접수창구를 마련했다.

문의 | 부평구청 ☎ 527-5911

계양구 에너지 절약 우수기관 선정

계양구는 지난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시 산하기관 및 군 · 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에너지 절약 실태점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구는 에너지 절약 운동을 범시민적 운동으로 확산시킨 점을 인정받아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문의 | 계양구청 ☎ 551-5701

서구 여성회관 착공

2010년, 서구 석남동 325번지 일대에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회관이 세워진다. 여성회관은 총 18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상 2층, 지상 4층 연면적 7천20㎡ 규모로 건립되며 지난 8월 7일 공사에 들어갔다.

문의 | 서구청 ☎ 562-5301

강화군 석모도에 해수온천 조성

2010년 강화군 석모도에 해수온천이 들어선다. 우리시는 지난 8월 13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석모도에 대규모의 온천단지를 조성하는 안을 원안가결했다. 시는 향후 사업비 1천800여 만원을 유치해 온천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문의 | 강화군청 ☎ 930-3114

옹진군 가축 무료 순회진료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옹진군 백령면, 대청면, 연평면 지역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한다. 기간 동안 가축 무료 진료, 약품 지원, 예방접종, 소독 등이 이뤄진다.

문의 | 옹진군청 ☎ 899-2114

교육청소식

'참 좋은 파트너' 상표권 획득

인천시교육청의 교육브랜드인 'The GOOD Edu-Partner, 참 좋은 교육파트너, 인천교육청'이 상표권을 획득했다. 교육청은 지난해 7월 특허청에 교육브랜드와 캐릭터, CI, 슬로건 '꿈 · 보람 · 만족을 주는 희망찬 인천교육' 등의 상표 등록을 신청해, 최근 상표권을 받았다. 이들 브랜드와 슬로건의 상표권 유효기간은 10년이고 이후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이번 상표권 획득으로 브랜드와 캐릭터에 대한 지적소유권을 확보하고 홈페이지와 각종 간행물, 홍보자료, 공문 등에 다양하게 활용, 교육의 인지도를 높여 나갈 수 있게 됐다.

문의 | 인천시교육청 홍보팀 ☎ 420-8225

인천시민 뱃삯 50% 깎아드립니다

우리시는 9월 1일부터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연안 여객선운임을 50% 할인한다. 시가 시민들에게 여객선운임을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로, 우리시의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는 한편 도서지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9월 1일부터 인천시민이 인천 연안의 여객선을 이용할 경우 운임이 반으로 줄어든다. 우리시는 도서지역의 관광활성화와 도서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인천시민들에게 연안여객선 운임을 50% 할인키로 했다. 나머지 운임은 시가 40%, 여객선사가 10% 부담한다. 도서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운임지원사업에 따라 현행대로 여객선 운임의 50% 또는 최대 5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우리시는 지난 2004년부터 도서주민을 대상으로 여객선운임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 시는 지난해 2월 여객선운임 지원을 '인천시민에게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했으며, 같은 해 12월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여객선사와의 협의를 거쳐 금년 8월 '인천시민 운임지원 방법' 등을 시행규칙으로 제정하는 등 제반준비를 마치고 이 같은 방안을 정했다.

이처럼 시민들에게 여객선운임을 지원하는 사업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도서지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과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의 국제적인 행사와 2009 인천방문의 해를 앞두고 인천의 관광자원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할인 대상 항로는?

할인 대상 항로는 인천 연안부두에서 백령, 연평, 덕적, 자월, 승봉 등 옹진군 내 모든 섬을 잇는 항로와 강화군 외포리에서 주문도간 항로 등 총 14개 항로다.

≫ 여객선운임을 할인받으려면?

인천시민이 여객선 운임을 할인받으려면 매표와 승선 시 승객 각자의 주민등록증과 승선일 기준으로 7일 이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한다. 단, 1년 중 섬으로 가는 피서객이 몰리는 하계특별수송기간인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는 할인 기간에서 제외된다.

문의 | 시 항만공항지원과 ☎ 440-3373

인천시의회 의정활동 높이 평가

인천시의회 의원들의 지난해 의정활동이 전국 16개 시 · 도 의회 가운데 가장 활발하고 효율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의 '2008년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수준 현황자료' 에 따르면, 인천시의회는 조례안건 제출 건수가 가장 많았던 반면 조례 1건을 생산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가장 적었다.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지난해 모두 101건의 조례안건을 발의했으며 이어 서울시의회가 62개, 경기도의회가 43개로 그 뒤를 이었다. 지방의원 1인당 조례발의 건수에서도 인천시의회는 의원 1인당 3.06개의 조례안건을 발의,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아울러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지난해 의정비 5천100만원씩을 받으며 101개 법안을 발의해 조례 1건을 생산하는 데 1천666만원을 썼다. 이는 16개 시 · 도 의회 평균인 1억 2천999만원의 8분의 1수준이다.

이 같은 결과에 고진섭 의장은 "의정비의 규모를 떠나 국민들의 세금으로 녹봉을 받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단순히 조례안건 발의 건수뿐 아니라 의정활동 전체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인천항 특위, 전곡항 · 군산항 방문

인천시의회 인천항 기능 재배치 및 선진화 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허식)는 지난 7월 31일 화성시 전곡항 및 군산항을 시찰했다.

이는 전곡항과 군산항의 운영실태를 파악, 인천항 각 기관의 역할과 활동방안을 모색코자 마련됐다. 인천항 특위 위원은 이번 시찰에서 시 공무원 및 내항살리기대책위원회, 인천항발전협의회 등 인천항 관계자 20여명과 함께 인천항의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수도권 규제 철폐 건의

인천시의회가 정부가 지난 7월 21일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정책' 을 철폐하는 데 발 벗고 나선다. 시의회는 "한국을 두바이로 개발한다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 지역의 낙후와 투자 위축을 초래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30일 임시회를 소집,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재고 촉구 결의(안)' 을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수도권 규제 철폐와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한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올림픽서 스포츠 외교 펼쳐

고진섭 의장은 OCA의 회원자격으로 중국 북경올림픽에 참석, 스포츠 외교를 펼쳤다. 고 의장은 지난 8월 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 개막식과 각국 대표단 만찬에 참석해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과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을 홍보했다.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우리시는 지난 8월 24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시의회가 발의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개정 공포(안)' 을 시행키로 했다. 관련 조례가 시행되면 투기 목적으로 외국 기업이 경제자유구역에 진입하는 것을 막고, 실질적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경기대회 성공개최 토론회

문교사회위원회(위원장 김용근)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토론회' 를 지난 8월 27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했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인천의 준비와 전략' 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대회성공을 위한 대회기반시설 확보방안',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시민 관심도 제고 및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문의 | 인천시의회 홍보팀 ☎ 440-6052

'시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상 정립' 을 목표로 제5대 2기 원을 새롭게 구성한 인천시의회가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의회 제1부의장으로 선출된 이근학 의원과 제2부의장으로 선출된 유천호 의원으로부터 당선 소감과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들어본다.

제1부의장 이 근 학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만들겠습니다"

시의회 부의장으로 당선된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제5대 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준 동료 의원들과 지역 구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2년간 의회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느껴 온 의회의 부족한 부분을 바로 잡고 잘한 것은 더 채우며, 내실 있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시의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요

공청회와 토론회, 각종 청원 등을 더욱 활발히 진행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청사의 증축으로 의원들의 활동 공간이 넓어진 만큼 늘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시 집행부에 전하는 힘 있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제5대 후반기 인천시의회는 시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내실 있는 의회를 목표로 합니다. 시민들도 시의회가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시민을 위해 행동하는, 참된 의회로 거듭나는 모습을 지켜봐 주길 바랍니다.

제2부의장 유 천 호

"시와 시민을 잇는 가교가 되겠습니다"

신임 시의회 부의장으로서의 각오를 듣고 싶습니다

먼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부의장으로 믿고 뽑아 준 동료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의원들로부터 큰 지지를 얻은 만큼 막중한 책임감도 느낍니다. 의장을 중심으로 동료의원들과 함께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분야에 역점을 두고 시의회를 이끌 것 인가요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칭찬받는 참된 의회상을 정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의원들간의 분열된 의사를 잠재우고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 내, 화합하는 의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아울러 활발한 협의를 통해 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앞으로의 포부를 듣고 싶습니다

시의회는 시 집행부와 협력하되 무엇보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오랫동안 언론계에 몸담았던 경험을 살려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시민과 시 집행부를 잇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시민들도 이런 시의회를 믿고 인천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길 바랍니다.

음악으로의 초대

글 · **우종윤** 인천시향을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치과의사

이 세상에 음악이 없다면 얼마나 삭막할까? 이런 생각을 종종해 본다. 괴테는 '음악은 과학 또는 철학 이상의 하늘로 가는 계단'이라고 정의를 내리기도 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음악은 여러 가지 정서를 환기시켜 사람을 기쁘게 혹은 슬프게 하며, 때로는 인간의 존엄성이 담겨 있기도 해 우리를 감동시키기도 한다. 즉 좋은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순화시켜 준다.

음악은 원래 신을 찬양하기 위해 시작되었다고 한다. 성경에서도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다. 음악이란 과연 무엇인가? 음악이 우리의 품성을 함양할 수 있는가? 음악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음악에 대한 이 같은 성찰은 아주 오래 전부터 수학자, 종교가, 철학자 등에 의해 존재해 왔다. 음악은 우리 귀의 달팽이관을 통과한 후 뇌의 청각을 담당하는 신경세포를 자극하여 감정을 유발시킨다. 음악은 우리를 소리에서 음으로, 음에서 멜로디로, 멜로디에서 하모니로, 하모니에서 리듬으로 안내한다. 또한 연주로, 감상으로, 이해 그리고 마침내 황홀경에 이르게 한다.

기쁨이 극치에 다다르면 우리는 종종 황홀경에 이르렀다고 말한다. 음악은 모든 예술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황홀경을 일으킬 가능성 또한 가장 높다. 마음이 흐트러질 때 들으면 보약이 된다는 바흐의 음악 가운데 '무반주 첼로 소나타'를 들으면 말없이 꿋꿋이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직한 용사들을 보는 듯하다. 바로크 시대 음악가인 헨델의 곡을 들으면 웅장함 때문에 황홀경에 빠지기도 한다.

우리 사회문화의 다양성과 사회계급, 개인의 독특한 취향이 다양한 음악을 요구하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음악을 일종의 자극제로 사용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진정제로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음악에서 긴장감과 아름다움을 찾기도 하지만 기분 전환이나 성난 외침을 구하기도 한다.

다행히도 우리 인천에는 다양한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 여러 교향악단과 합창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주회장의 분위기는 아직 성숙되어 있지 못한 느낌이다. 성인보다는 어린 학생들이 대다수 관객이기 때문이다. 엄마의 기준이 아이의 수준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인천의 아버지, 어머니들 가운데 클래식음악 애호가들이 많이 나와 연주회장을 많이 찾아 주었으면 한다. 좋은 매너로 교향악을 감상하고 성숙한 관람 문화를 조성해 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이다.

또한 청소년을 위한 음악 프로그램도 많이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음악에 재능이 있는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인천에서 연주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앞으로 인천시립교향악단이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같이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는 교향악단이 될 것을 확신한다. 경제성장과 함께 문화예술이 발전해야 삶의 질이 높아지는 진정한 세계 일류 명품도시가 될 것이다.

내 가슴에 새긴 한 구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성경 잠언과 시편 중에서)

더위는 날리고 힘아 솟아라

동해바다로 가족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하조대, 주문진, 경포대의 맑은 바닷물에 무더위를 날리고, 강릉의 통나무펜션에서 신선하고 깨끗한 새 기운을 얻었습니다. "힘아~ 솟아라~" 포즈만 봐도 시원스러워 남은 더위도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아빠들 파이팅!

이현아 | 연수구 동춘동

송도유원지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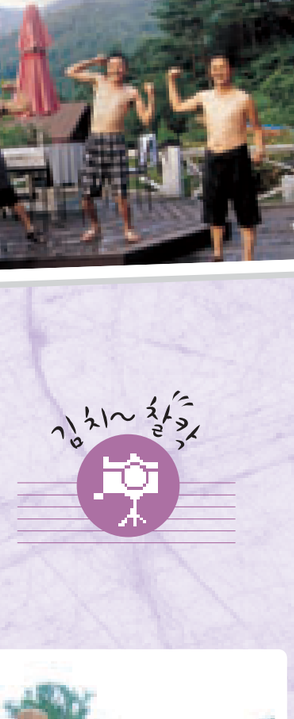
여름철마다 동생들 손 꼭붙잡고 가족끼리 항상 송도유원지에서 까맣게 타서 오곤 했는데…. 그 시절이 그립네요.

구미경 | 남동구 남촌동

괴물들아 다 덤벼라~

방학이라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우리 집. 자기가 와일드스피릿이라면서 "괴물들아 다 덤벼라"라고 말합니다. 무기는 최강의 회전관이라나? 너무 웃겨서 한낮의 더위가 싸~악 가시더라고요. 만들기도 정말 잘 만들었어요. 윤호, 승호 파이팅~.

윤외숙 | 남구 주안8동



아이쿠 이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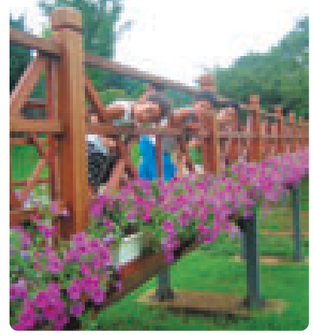
결혼 20주년 여행을 갔습니다.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업어주겠다고 나서는 남편의 마음이 예뻐서 선뜻 업혔지요. 하지만 처녀 때 S라인은 어디가고 엉덩이가 푹 꺼집니다.

조순임 | 연수구 동춘1동

붕어빵 손주

할머니께서 향우회 모임에 갔다가 신나게 노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할머니의 어린시절을 기억하시나 봅니다. 몸이 불편해 자유롭게 움직이지는 못해도 손자 손녀를 보면서 할머니도 행복해 하십니다.

한미란 | 부평구 갈산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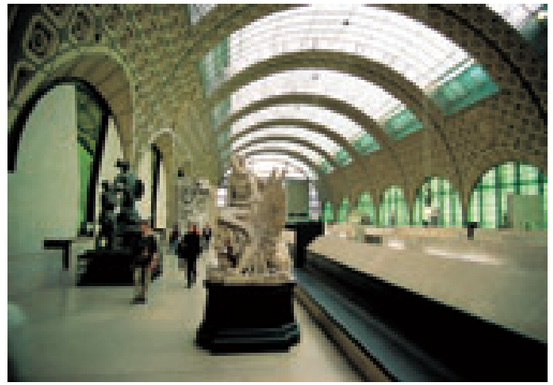
도레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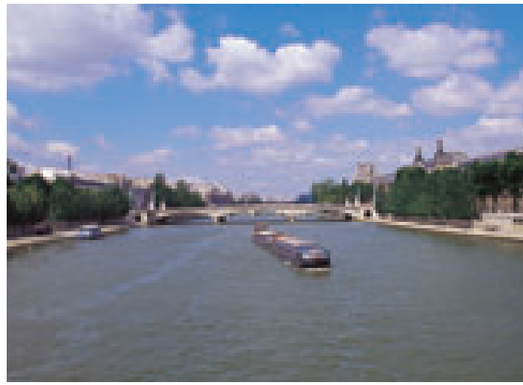
강원도로 휴가를 떠났지요. 그런데 차가 너무 막혀서 거의 한 시간이 지나도록 인천을 벗어나지 못하자, 중간에 인천대공원으로 방향을 돌렸답니다. 하지만 여름을 만끽하기엔 충분했어요

한경숙 | 계양구 이화동

장원에 도전하세요

〈굿모닝인천〉에서는 독자여러분의 사진을 공모합니다. 주제는 따로 없으며 계절에 맞는 추억의 사진이나 인천의 아름다운 모습, 사연이 담긴 사진 등이면 환영합니다.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100자 이내)을 적어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보내드립니다. 특히 응모하신 작품 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좋은 사진은 장원으로 뽑아 문화상품권 1만원권 3장을 드립니다.


기차역으로 사용하던 곳을 미술관으로 재활용한 오르세 미술관 내부


화물선이 센 강을 지나고 있는 풍경

자타가 인정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명품도시는 아니지만, 파리 시민들은 자신들의 도시를 최고의 도시라고 말한다. 물론 객관적인 측면만 놓고 보면 파리는 덴마크 코펜하겐이나 스위스 취리히에 비해 명품도시의 순위에서 조금은 밀려난다. 하지만 문화예술을 시작으로 새로운 개념의 신도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주거단지 등을 보면 파리는 어느 명품도시와 비교해도 손색이 전혀 없다.

글 · 사진 **이형준** 〈바다 위의 낭만 크루즈 여행〉 저자

자전거가 달리는 파리

유서 깊은 문화도시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좀처럼 도시풍경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에 반기를 드는 사람보다 동조자가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만의 착각이 아닐 게다. 하지만 파리는 좀 다르다. 파리 시내를 걷다보면 과거와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자전거다. 파리 당국에서는 지난해부터 외국인과 지방에서 올라 온 방문객을 대상으로 단돈 1유로에 자전거를 대여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자전거 정책은 처음 시도될 때만 해도 해외토픽을 장식하는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불과 2년 만에 도시의 새로운 명물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파리는 그동안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등 다른 유럽의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던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고, 휴일에 자전거와 사람만 통행할 수 있는 거리를 차츰 늘려가고 있다. 이런 정책은 도시의 교통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도 일조하고 있다.

신구의 아름다운 조화

1962년 파리 시청에서는 황폐하고 지저분한 지역을 새롭게 정비해, 파리를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로 만드는 개발 프로그램이 발표됐다. 그랑 트라보(Grand Travaux)라고 명명된 이 사업은 파리를 대표하는 명소를 새롭게 단장하는 것으로, 세계적인 명소들 대부분 이 프로젝트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났다. 하나같이 미래 지향적인 건설을 추진한 그랑 트라보 프로젝트 가운데 핵심이 된 곳이, 파리 서쪽에 자리한 신도시 라데팡스(La Defence)다.

라데팡스는 여러 측면에서 구시가지와 확연히 구분된다. 구시가지가 고즈넉한 골목과 고풍스러운 건물로 대표된다면, 라데팡스는 최첨단을 달리는 상업시설과 거대한 조형물로 이야기된다. 가로와 세로가 똑같은 정사각형 형태의 신개선문으로 불리는 그랑 아르슈(La Grande Arche)를 필두로 국제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석유회사, 은행, 쇼핑몰, 아파트 그리고 묘지까지…. 약 80헥타르에 이르는 공간에 각종 건축물은 저마다의 개성을 자랑하며 세워져 있다.

또 라데팡스에 들어서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이 상큼한 공기다. 그 어느 곳을 살펴도 매연을 내뿜는 자동차를 볼 수가 없다. 바로 새로운 개념으로 세워진 도시답게 모든 공간이 기능에 따라 철저하게 구분돼 있기 때문이다. 가장 아래쪽에 지하철이 달리고 그 위로 버스와 승용차가 운행하며 보행자는 상층부를 이용한다. 보행자의 공간을 제외하면 모든 교통시설이 지하에 개설돼 있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은 자동차로 인한 사고는 물론이고, 사람들이 다니는 공간으로 소음과 배기가스가 유입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준다.

한편 라데팡스를 구성하는 건축물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어떤 건물이든 멋진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는 점이다. 철근 구조물로 만든 웅장한 조각, 인간인지 동물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초현실적인 작품…. 그뿐 아니다. 우리네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공간이 있으니, 바로 묘지다. 거대한 빌딩과 함께 조성된 묘지는 미래도시와 진정한 장례문화가 어떤 형태로 자리매김 해야 하는지 잘 보여 준다.

도시와 자연의 우아한 어울림

파리를 방문한 사람이라면 센 강(Seine R)을 떠다니는 유람선을 어렵지 않게 보았을 것이다. 유람선을 타고 센 강변을 가로지르다 보면 고풍스러운 건물 사이에 현대적인 유리건물과 잔디가 깔린 앙드레 시트로앵(Parc Andre Citron) 공원과 만난다. 이 공원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인 시트로앵의 공장 터에서 생태환경공원으로 거듭난 공간이다.

공원이 개장하던 날 공원을 찾은 파리 시민들은 물론이고 환경운동가와 생태학자들은 너나없이 새로운 개념의 공원을 둘러보며 탄성을 자아냈다. 그 이유는 23만㎡에 이르는 면적 가운데 약 3분의 2에 달하는 14만㎡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놓았기 때문이다. 앙드레 시트로앵 공원은 도시 경관과 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설한 최초의 공원으로 자연, 움직임, 솜씨, 건축이란 4개의 테마로 조성돼 있다.

각기 다른 용도로 조성된 공원 가운데 자연생태계를 잘 보여 주는 곳은 동쪽지역이다. 공원 면적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동쪽지역은 새롭게 조성한 일부 구조물을 제외하고 모두 원래 있던 것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종류의 나무와 식물, 꽃, 곤충 등을 볼 수 있어 자연과 가까이서 호흡하길 원하는 방문객이 줄을 잇는다.

한편 공원에는 독특한 인공 건축물 몇 동이 세워져 있다. 이곳에 조성된 건축물은 얼핏 보면 인공 구조물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처럼 느껴질 정도로 자연친화적이다. 공원에 조성해 놓은 인공구조물이 자연친화적인 까닭은 주변 경관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연과 생태계의 변화과정을 엿볼 수 있는 전시장 건물의 경우, 옥상에 흙을 다져 나무를 기르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커다란 화단과 화분을 설치해 제법 큰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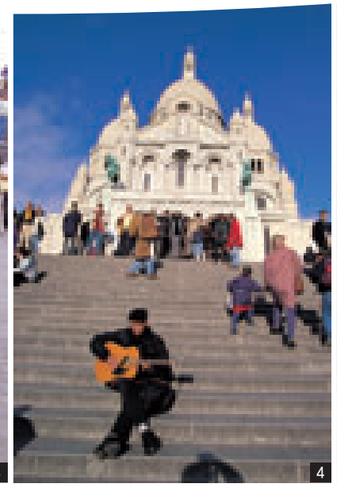
안정된 주거환경은 인간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 편안함은 다시 사회를 풍요롭게 만든다. 파리 최대 공원인 볼로뉴(Boulogue) 숲 주변에는 오랜 세월 파리를 대표하는 고급 주거지역이 조성돼 있다. 파리시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곳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길 원한다. 우리 개념으로 보면 하늘 높이 올라간 고층아파트를 고급 주거지로 생각하기 쉽지만, 서양 특히 옛 것을 선호하는 파리시민들이 생각하는 가치의 척도는 다르다. 개인 저택이건 아파트건 현대적인 것보다 세월의 흔적이 녹아 있는 옛날 주택을 선호한다. 여기에는 여러 면이 고려되겠지만 무엇보다 자연 환경이 우선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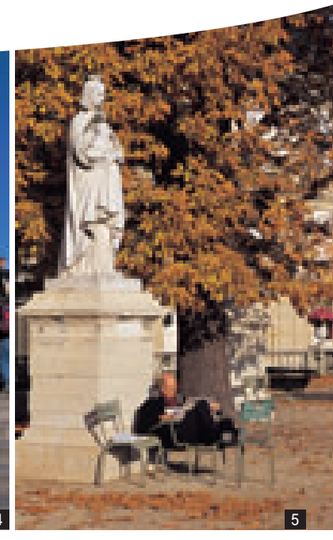
예술이 머무름 없이 흐르다

파리와 미술관은 떼어놓을 수 없다. 파리에는 작품의 질과 규모의 측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미술관과 박물관이 즐비하지만 그 중에서도 명품 예술도시로서의 면모를 돋보이게 하는 것은 센 강변에 자리 잡은 오르세 미술관(Musee d' Orsay)이다. 오르세 미술관은 과거 기차역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보수해 미술관으로 재개관하였다. 세계적인 거장의 작품으로 가득한 오르세 미술관이지만 이보다 더 유명세를 치르는 것은, 기차역을 미술관으로 사용한 건물 그 자체다. 이 곳은 진정한 친환경공간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는 강한 상징성을 담고 있다.

이처럼 파리는 세계적인 명품도시로서 손색없는 여러 면모를 갖추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옛것을 보존하면서 그 위에 새로운 문화를 덧입히는 지혜야 말로 파리를 명품도시 중의 명품도시로 만드는 핵심 요소다.

1. 친환경적이고 독특한 주제로 설계해 놓은 앙드레 시트로앵 공원
2. 파리 거리에 자리한 꽃집에서 꽃을 구입하는 파리지엔느
3. 센 강변에서 시민과 관광객을 상대로 초상화를 그리는 거리의 화가와 고객들
4. 몽마르트 언덕의 계단에서 기타를 연주하는 거리의 악사
5. 공원에서 독서를 즐기는 시민. 파리 어느 곳을 가도 계절에 관계없이 독서를 즐기는 시민들을 만날 수 있다





미스터브라스 밴드

미스터브라스는 트럼펫, 트럼본, 튜바, 색소폰, 드럼 등으로 구성된 6인조 남성 퍼포먼스 브라스 밴드. 클래식 이외의 영화음악, 가요, 재즈 등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는 그룹으로 관악기의 장점인 웅장함과 재미있는 연주 동작을 보여준다. 이번 무대에서는 사운드 오브 뮤직 중 도레미송, 시스터 엑트 중 I Will Follow Him, 성자의 행진 등을 들려준다.

일시 _ 9월 20일(토) 오후 3시
장소 _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싸리재홀
티켓 _ 전석 6,000원
문의 _ ☎ 777-9140~8 www.iecs.go.kr

에버브라스의 FUN FUN한 콘서트

에버브라스는 동유럽 명문음대 출신의 외국인 4인조 밴드로 구성된 그룹이다. 특유의 자유로움과 파워풀함을 바탕으로 클래식, 영화음악, 그리고 국내 가요를 비롯한 여러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연주를 선보인다.

일시 _ 9월 12일(금) 오후 7시30분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티켓 _ 무료
문의 _ ☎ 420-2022

인천시립무용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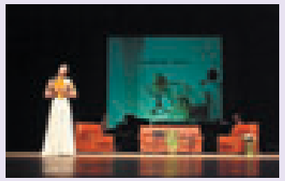
제6회 I-Dance 탈로 노닐다 (逍遙遊)

은율탈춤 중의 하이라이트를 모아 무대용으로 재구성한 작품으로 우리 전통 탈춤의 멋과 흥을 고스란히 느끼실 수 있는 무대이다. 이번 공연을 위해 여름 내내 특별강습을 받은 인천시립무용단 단원들의 구성진 춤사위가 한층 더 흥을 더할 것이다.

일시 _ 9월 25일(목) 오후 7시30분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_ 10,000원, 5,000원
문의 _ 인천시립무용단 ☎ 420-2784

Classic Musical Concert

사랑과 우정 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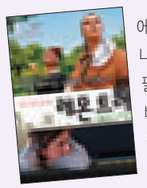
오페라의 대중화를 꿈꾸는 미추홀오페라단이 제시하는 드라마와 연기, 연주가 결합된 새로운 형식의 무대이다. 사랑과 우정사이, 정의와 가족애 사이에서 방황하는 젊은이들의 드라마틱한 삶을 친근한 클래식곡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작품으로 구성했다. 이해하기 쉽게 한국어 자막과 배경화면을 활용한다.

일시 _ 9월 5일(금) 오후 7시30분
장소 _ 부평문화사랑방
티켓 _ 전석 1,500원
문의 _ ☎ 505-5995

영화공간 주안

9월 상영작

레몬트리



에란 리클리스 감독의 〈레몬트리〉는 안보문제 때문에 나무를 빼앗기게 된 여성의 실화를 토대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오래된 갈등의 골을 조망한다. 2008 베를린영화제 관객상을 수상작으로 자칫하면 겉돌 수 있는 여성의 내면과 정치적 갈등을 희망과 관조의 유연한 리듬감으로 훌륭하게 엮어냈다.

씨네휴 레인보우

〈씨네휴 레인보우〉는 거장의 신작부터 신진 감독의 화제작까지 개성 넘치는 작품을 선보이는 기획전으로 영화사 스폰지가 주관하는 영화제이다. 저스트 어바웃 러브, 천국의 가장자리, 유 더 리빙, 로맨스 등 7편의 유럽 영화를 선보인다. 전국의 예술영화관에서 순회 상영 중이며, 9월에 영화공간 주안에서 만날 수 있다.

※ 영화공간 주안은 인천시 남구가 운영하는 예술영화관으로, 일반영화관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영화들을 만날 수 있다.
개관시간은 오후 1시부터 10시이며 월요일은 휴관이다. ☎ 427-67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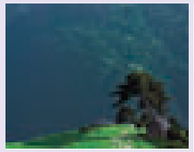
The History 킬리만자로의 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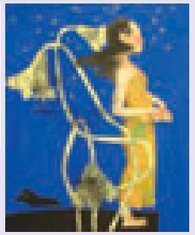
조용필 40주년 기념 콘서트

2008년, 드디어 40주년을 맞이한다. 1969년, 약관에도 못 미치는 나이에 시작된 그의 위대한 음악적 행보가, 40년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40년간의 세월 동안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와 동시대에 살며 그의 음악과 노래를 느낀다는 것이 행복하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여전히 조용필, 그가 최고이다. 우리는 모두 조용필과, 그의 노래와 함께 해왔다. 그와 그의 음악을, 그 위대한 40년간의 역사를 기념하여 우리 마음에 기억하고자 한다.
40년의 세월을 함축하는 여섯개의 소 장르는 슈퍼스타로서의 조용필과 자연인으로서의 인생을 고뇌하는 조용필을 구현한다. 그리운 날들, 추억의 날들, 도전의 날들, 나눔의 날들, 나의 날들, 그리고 동행으로 구성된 이번 공연은 각 소제목에 배치된 조용필의 불멸의 히트곡들을 통해 동심, 우정, 꿈, 사랑과 이별 등의 사람의 인생을 압축할 예정이다.

일시 _ 10월 11일(토) 오후 7시(1일 1회)
장소 _ 인천문학경기장
티켓 _ VIP 120,000원 / R 100,000원 / S 80,000원 / A 60,000원 / B 40,000원
문의 _ ☎ 872-9000

제4회 IAF 인천아트페어 IAF 2008 Incheon Art Fai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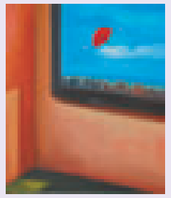




2008 인천아트페어가 9월 20일부터 25일까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열린다. 2008 인천아트페어는 국제 수준의 미술이 결여된 국제도시는 존재할 수 없다는 인식으로 그에 대한 실행 방안의 첫 단계로 올해는 백남준을 비롯한 세계유명작가들의 특별전과 화랑부스전 등을 중심으로 개최한다.

평소 미술문화의 향유를 원하였으나 접하기 어려웠던 일반인들에게 다양한 형태와 장르의 작품을 선보이게 될 것이다. 또한 작가와 관람객의 직접적인 교류의 장이 마련되므로 문화적 소통으로 인한 미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전시장르는 회화, 조각, 영상, 설치, 판화, 사진, 미디어아트, 공예, 서예 등이며 전시구성은 인천, 경기도 내의 화랑부스전과 개인부스전, 특별전, 초대작가전, 2007년 차세대 유망주 수상작가전 등으로 이뤄진다.

문의 _ 사)한국미술협회 인천광역시지회 ☎ 867-2196



김하린 '꿈의 유희'

연정갤러리에서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서양화가 김하린의 개인전 '꿈들의 유희전'이 열린다. 김하린은 작품 속에 철저히 자신을 투영하고자 하는 작가다. 그녀의 작업에서 보여지는 행태는 초현실적 요소가 다분하지만 철지난 사조의 테두리 안에 자신을 잡아두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가슴에 질펀히 숨어있는 자아를 발견하고, 발견한 그것을 화면에 담아내는 데 있다.

8월 29일 ~ 9월 11일 : 우보 민승기 기증작품 특별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8월 29일 ~ 9월 4일 : 이명지흑백사진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8월 29일 ~ 9월 4일 : 인천서예학술연구회회원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8월 29일 ~ 9월 4일 : 사진모임 '새빛' 정기전시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9월 3일 ~ 9월 13일 : 정태종 선생 전각 특별전 / 인천문화관 전시실
9월 5일 ~ 9월 11일 : 인천-상해 수채화교류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 · 소 · 미추홀전시실
9월 5일 ~ 9월 11일 : 박승천 개인전 / 신세계갤러리
9월 12일 ~ 9월 18일 : 인천미술초대추천작가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 · 중앙전시실
9월 12일 ~ 9월 18일 : 인천광역시 제5회 서각대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 · 미추홀전시실
9월 12일 ~ 9월 21일 : 2008 세라믹페스티벌전 / 신세계갤러리
9월 16일 ~ 9월 26일 : 인천예고 미술작품전 / 학생교육문화회관 가온갤러리
9월 19일 ~ 9월 25일 : 2008인천아트페어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9월 24일 ~ 9월 29일 : 인사모 사진 특별전 / 한중문화관 전시실
9월 24일 ~ 9월 30일 : 김규창 개인전/ 신세계갤러리
9월 26일 ~ 9월 30일 : 한중일 국제서예교류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9월 26일 ~ 9월 30일 : 교원서각협회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9월 26일 ~ 9월 30일 : 파스텔동인선우회 정기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9월 26일 ~ 9월 30일 : 인천가톨릭사진가회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9월	2	3 **차이코프스키 발레환타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 1만5천원 서울와이즈발레시어터 ☎ 010-4572-7301	4	5 **버블버블공연&체험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4시 30분, 오후 7시 30분 2만원 / 극단예인 ☎ 1566-6551 **금요예술무대** **차니라띠노의 라틴 팝이야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 무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 420-2022 **퓨전국악 어울림** 학생교육문화회관 싸리재홀 오후 6시 30분 / 무료 / ☎ 875-4644	6 **버블버블공연&체험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 2만원 극단예인 ☎ 1566-6551 **토요상설무대** **인천시립무용단(한국무용)**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인천시립무용단 ☎ 420-2788 **중국기예와 변검** 한중문화관 / 오후 2시 / 무료 ☎ 760-7860	7 **버블버블공연&체험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 2만원 극단예인 ☎ 1566-6551
8	9 **제14회 인천클라리넷 앙상블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 5천원 ☎ 011-225-8477 **쇼, 동화뮤지컬 〈춤추는 동화책〉** 부평문화사랑방 오전 10시 30분, 오후4시 전석 1천5백원 / ☎ 505-5995	10 **쇼, 동화뮤지컬 〈춤추는 동화책〉** 부평문화사랑방 오전 10시 30분, 오후4시 전석 1천5백원 / ☎ 505-5995	11 **쇼, 동화뮤지컬 〈춤추는 동화책〉** 부평문화사랑방 오전 10시 30분, 오후4시 전석 1천5백원 / ☎ 505-5995	12 **금요예술무대** **에버브라스의 FUN FUN한 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 무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 420-2022 **인디언 아파치 공연** 부평문화사랑방 / 오후 7시 30분 전석 1천5백원 / ☎ 505-5995	13	14
15	16 **부평역사박물관 토요전통 상설공연** 9월6일(토) 박물관 뒤 상설무대 민속합주 시나위, 투전풀이(소고춤과 소리), 호무가(어린이 국악) 등	17	18 **창작오페라 〈사랑과 우정 사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 1만2천원, 7천원 쏠리스트 앙상블 ☎ 016-9600-1198 **청소년을 위한 행복한 음악회** 학생교육문화회관 싸리재홀 오후 7시 30분 / 5천원 인음청소년교향악단 ☎ 888-0808	19 **창작오페라 〈사랑과 우정 사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 1만2천원, 7천원 쏠리스트 앙상블 ☎ 016-9600-1198 **추억의 유익종 콘서트** 부평문화사랑방 / 오후 7시 30분 전석 1천5백원 / ☎ 505-5995	20 **창작오페라 〈사랑과 우정 사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 1만2천원, 7천원 쏠리스트 앙상블 ☎ 016-9600-1198 **토요상설무대** **인천시립무용단(한국무용)**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인천시립무용단 ☎ 420-2788	21 **창작오페라 〈사랑과 우정 사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 1만2천원, 7천원 쏠리스트 앙상블 ☎ 016-9600-1198
22	23	24	25 **I-dance 2008 탈로 노닐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 1만원, 5천원 인천시립무용단 ☎ 420-2788	26 **인천가톨릭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 1만원 ☎ 203-8116 **금요예술무대** **퍼니밴드의 퍼니브라스 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 무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 420-2022	27 **베누스토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 무료 ☎ 010-3696-3606 **토요상설무대 퓨지컬 철부지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인천시립무용단 ☎ 420-2788 **한국에서 중국까지** 한중문화관 오후 2시 / 무료 / ☎ 760-7860	28 **무형문화재 전통예술대제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 7시 / 무료 인해전통문화예술원 범패, 나비춤 보존회 ☎ 529-6708 **가을맞이 가곡의 밤** 학생교육문화회관 싸리재홀 오후 7시 / 2만원, 1만원 미추홀오페라단 ☎ 882-2898
29	30 **제8회 팝스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 5천원 인천음악협회 ☎ 017-327-2401					

약속어음 공증의 소멸 시효

Q **갑은 2004년 1월경 을에게 1천만원을 이자 월2푼으로 빌려주면서 1년 후에 받기로 하였는데, 을은 1년이 지나도록 갚지 않았습니다. 갑은 을에게 2005년 1월 1일경 1천만원을 액면금으로 하고 지급기일을 3개월 후로 하여 약속어음을 공증 받아 두었습니다. 그러나 지급기일 이후에도 을은 여전히 돈을 갚지 않았고, 최근 을이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상속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은 위 약속어음공정증서를 가지고 바로 을 소유의 아파트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A 소멸시효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아무런 권리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아예 그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채권은 10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 치료비 · 공사비채권 등은 3년, 숙박료, 음식료 등은 1년의 소멸시효기간에 걸리고,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지급기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본래 약속어음을 공증까지 받아 두는 약속어음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은 일종의 집행권원이 되므로 별도의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곧바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도 있는 강력한 효력이 있어 당사자간에 금원을 빌려주고 채권확보의 수단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의 3년, 1년 등 단기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되지만,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즉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확정판결 등과 같은 기판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공증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공정증서의 원인이 되는 채권의 성질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따라서 약속어음을 공증한 경우에는 그대로 3년이 소멸시효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위 사안의 경우 갑은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로부터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약속어음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이미 경과되었고, 따라서 갑은 을의 아파트에 대하여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위 약속어음공정증서는 대여금의 지급확보를 위해서 교부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애초의 대여금채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대여금채권과 약속어음채권은 병존 할 것이고, 결국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서 아직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갑은 을의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우선 해 놓고, 을에 대하여 애초의 대여금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비로소 을의 아파트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러한 법 장치를 두고 병주고 약주는 것이냐고 비아냥대기도 합니다만, 별도의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받아두고도 제때에 행사하지 못하여 그 기회를 한 번 잃었지만, 돌아가더라도 가압류와 소제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두고 있는 법률장치의 오묘함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글 · **김미영 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 ☎ 861-5511)

국제외교의 1번지였던 제물포

개항 직후인 1884년 10월에 체결한 '인천제물포각국조계장정'에 의해 일본, 청국, 영국, 러시아, 독일, 미국은 제물포에 자국인들을 거주하게 했고 특히 일본, 청국, 영국, 러시아는 인천에 영사관을 설치했다.

글 · **조우성** 시인/인천시 시사편찬위원

각국 영사관 · 김재열 수채화

일청영로(日淸英露), 영사관 세워

제물포가 개항된 것은 1883년이다. 그에 따라 지금의 남구 관교동에 있던 인천도호부(仁川都護府)가 설치 5백여 년 만에 폐지되고, 대신 개항장으로 정해진 제물포-지금의 중구 내동-에 인천감리서(仁川監理署)라는 새로운 이름의 관청이 들어섰다.

인천감리서는 과거 도호부가 수행해 왔던 행정기능과 더불어 외국 선박의 입출항, 해관(海關 · 세관)의 운영, 외국인 관련 사무 등을 맡아 보았는데, 이와 같은 관아의 확장 이전은 인천 지역사 변천에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근대(近代)와의 접촉이었다. 인천도호부 시절, 인천의 인구는 기천 명에 지나지 않았고, 주업은 농사였으며 향교와 서당이 유일한 교육기관으로서 기능하는 전통적인 농경사회의 틀을 형성하고 있었다.

하지만, 제물포에서의 사회적 양상은 판이하게 달랐다. 우선 농사가 주업일 수 없었다. 개항 초 제물포의 사진을 보면, 탁포(拓浦 · 지금의 신포동) 해변가 일부 지역에 논이 있기는 했지만, 그와는 어울리지 않게 언덕바지(지금의 중구청 자리)에는 벌써 서양식 건물이 들어서 있었던 것이다.

개항 직후인 1884년 10월 체결한 '인천제물포각국조계장정'에 따라 일본은 제물포 포구 중앙 지대에 7천여 평을, 청국은 서쪽 해안 지대 5천평을, 영국, 러시아, 독일, 미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은 응봉산 기슭을 포함한 14만평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국지계로 정해 자국민들을 거주하게 하였다.

더불어 청국은 오늘의 중산소학교, 일본은 중구청, 영국은 파라다이스 호텔, 러시아는 인천역 옆 해안가에 각각 영사관을 설치했다. 오늘날 인천에 단 한 곳의 외국 영사관도 없는 현실과 비교하면 당시 제물포가 국가 외교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가를 알 수 있다.

그 같은 제물포의 지정적 중요성은 외국인의 러쉬로 이어졌다. 외교관, 상인, 선교사, 군인, 학자, 여행가 등 제물포를 찾은 그들의 계층은 다양했다. 특히 개항 초 청국 지계 안에 자리잡은 동순태(同順泰)를 비롯한 청상(淸商)들이 광목, 옥양목, 설탕, 비누, 성냥, 비누 같은 개화 물품을 들여와 큰 수익을 내자 영국의 이화양행(怡和洋行 · Jardine Matheson Co.), 독일의 세창양행(世昌洋行 · H. C. E. Meyer Co.), 미국의 타운센트 양행(陀雲仙洋行 · Townsend Co.) 등 서양의 무역상사들도 속속 발을 들여 놓았다.

그들을 국적별로 보면 일본, 청국, 영국, 러시아, 독일,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인 등이었다. 그들은 각기 제물포에 거주하면서 상호간의 이해 증진과 이권 조정에 관한 협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일종의 자치 기구인 신동공사(紳董公司)를 출범시켰다.

신동공사는 회원국 간의 교류 기구로서 제물포구락부를 조직했다. 곧바로 지금의 중구 관동에 회관을 마련했으나 공간이 협소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자 러시아의 건축 기사 사바찐에게 설계를 맡겨 1901년 6월 22일, 지금의 자유공원 인천문화원 연합회 자리에 제물포구락부의 회관 건물을 완공했다.

제물포구락부의 멤버들은 독일인 사업가 뤼어스, 통역관 우레탕, 러시아 설계가 사바찐, 동서개발회사 사장 데쉴러, 세창양행 지점장 볼터 등 인천 거주 외국인을 비롯한 미국 공사 알렌, 서울 전차 건설 책임자 콜브란, 궁정 악장(樂長) 에케르, 고종황제의 시의(侍醫) 분쉬 박사, 영국 영사 고페 등 국적을 망라했다.

독일 의사 분쉬가 자신의 일기에 "어제 제물포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볼터 씨와 함께 마이어 상사의 젊은 사장 뤼어스라는 분한테 오찬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물포구락부에 가서 이 곳 주요 인사를 모두 만나보았습니다. 영국 영사, 프랑스 세관장, 이 곳 큰 상사의 대리인 50여 명과 볼터 씨 가족을 만나러 서울서 온 두 명의 신사를 만났습니다."고 회고한 내용은 바로 제물포구락부의 위상을 단적으로 전해 주고 있다.

달리 말하면, 인천 제물포는 조선이 근대화돼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외교적 거점으로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의료 발전에 중재한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그러나 청일 · 러일전쟁에서 이긴 일본에 의해 국제정치의 판도가 급격히 바뀌면서 제물포는 '인천(仁川)'의 일본식 발음인 '진센(Jinsen)'으로 불렸고, 도시 전체가 일본의 소도시처럼 변모해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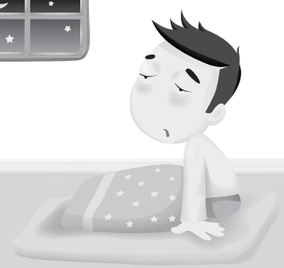
외교적 거점으로서의 위상도 날이 갈수록 쇠잔해 갔다. 광복 전까지 일본, 청국인을 제외한 인천 거주 외국인은 선교사, 신부, 수녀 등 극히 일부에 불과했고, 광복을 거쳐 6 · 25전쟁 후까지는 줄곧 월미도와 부평 등지에 주둔한 군인에 의한 G.I 문화에 젖어들었던 것이다.

개항 후 국제도시로 출발했던 인천의 또하나의 정체성이 최근 비로소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대 공산권과의 국교 정상화, 인천항 전면 독(Dock) 건설 등 인천항의 활성화와 인천국제공항의 개항, '신도시' 건설 등 도시 인프라의 지속적인 구축과 인천세계도시축전,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 등은 인천이 우리나라 외교의 1번지였던 위상을 되찾는 계기가 되리라 전망된다.

특히 한창 건설 중인 '신도시'는 국제 외교의 현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건설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증되고 있지만, 국제비즈니스센터, 지식정보산업단지, 첨단바이오단지, '테크 빌' 등이 마침내 실현되는 날, 인천은 천지개벽에 비견할 사상초유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과학적 대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한 세기 전, 싫든 좋든 제물포를 개항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피동적 역사에 비하면, 오늘 국제도시로 거듭나는 인천의 위상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

밤의 불청객 수면장애



잠은 삶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다. 하지만 생활패턴의 변화로 늦게 자는 수면습관이 반복되다보면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특히 현대인들은 운동량이 적고 밤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하다가 잠이 들고 취침시간이 들쭉날쭉한 경우가 많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한참을 뒤척이다 잠이 들거나 자다가 여러번 깨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려면 짜증이 나거나 피곤함을 호소할 때가 많다.

대부분은 조금 쉬면 낫겠지 하는 생각에 쉬는 날에 잠을 몰아서 자기도 하지만 언제나 잠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된다. 수면의 질은 자는 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보다는 당사자가 자신의 수면을 충분하다고 느끼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수면의 결핍 자체가 이튿날 기분이나 주간 활동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한의학에서 수면장애의 원인으로는 음혈이나 중기부족, 심비의 허약, 그밖에 담이나 수기가 몰리는 것 등 여러 원인에 의하여 심신이 불안해서 생긴다고 본다. 가슴이 답답하고 땀을 많이 흘리고 입안이 마르는 증상이 있으면서 수면장애가 있는 것은 음혈이 부족하여 허화가 상승해서 생긴 것이다. 기운이 없고 입맛이 떨어지면서 수면장애가 있는 것은 중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속이 매슥거리면서 구역질을 하고 가슴이 답답하면서 수면장애가 있는 것은 담이 많아서 생긴 것이다. 꿈을 많이 꾸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음식을 적게 먹게 되면서 잠을 못자는 것은 심비가 허해서 생긴 것이고 가슴이 답답하고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자주 깨는 것은 간담이 허하기 때문이다.

수면장애가 오래 지속되면 두통이나 소화 장애를 비롯한 신체적 증상뿐만 아니라 흥분, 긴장, 불안, 우울상태 등의 정신적인 증상을 호소하게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취침 및 기상시간을 규칙적으로 하고 술에 의존해서 잠을 자지 말아야 하며 약물을 남용하지 않아야 한다. 자기 전에 가벼운 체조나 따듯한 물로 샤워하는 등으로 체온을 약간 높여주는 것은 숙면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산조인이나 감국과 같은 약재를 달여서 차로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산조인은 심과 간, 담을 보호하고 정신을 안정시켜 가슴이 답답하고 잠을 못 자는데 효과가 있고 감국은 감국화꽃을 말린 것으로 풍열을 없애고 눈을 맑게 하며 간열로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우면서 잠을 못 자는데 효과가 있다. 또한 행간, 삼음교라는 혈자리를 지압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행간혈은 발등 제1, 제2 발가락이 갈라진 사이에서 뒤로 1푼 되는 곳에 있고 삼음교는 안쪽 복사뼈의 중심에서 손가락 3개 정도 올라가 굵은 정강이뼈 안쪽 뒤에 있는데 손으로 자주 지압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이 숙면을 취하는데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인을 찾아서 원인제거를 위한 치료를 하는 것이다. 본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면장애로 일상생활이 불편하다면 신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의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글 · **홍종수** 인천광역시의료원 한방과 과장

생활 속의 작은 실천, 십시일반의 미덕

글 · **김진희** 시 여성복지보건국장

경제여건이 어려워지고, 계층간의 차이가 멀어지면서 살기가 어려워진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전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생각할 수 있다. 흔히 기부라고 하면 한해에 2억 5천만 달러를 기부한다는 빌게이츠나 명성이 자자한 대기업처럼 큰 금액을 쾌척하는 일을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기부는 우리 생활 속에서 작은 것부터 출발할 수 있는 즐거운 선택이다.

그러나 공공부조로 소외계층을 돕는 데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어서 불우이웃을 돕는 일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안타깝다. 작은 실천으로 이웃 사랑을 전하기 위해 우리시에서는 자발적으로 급여의 우수리를 떼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인천시 공무원을 시작으로 군 · 구와 공사 · 공단 임직원들까지 참여하는 '작은 이웃사랑 실천, 급여 우수리 나눔' 이 바로 그것이다. 급여로 받는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우수리를 공제하는 동시에 1천원, 3천원 등 일정액 기부를 희망하는 사람을 모집해 매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계좌 입금하는 방법이다. 급여에서 우수리를 떼면 많게는 990원에서 적게는 10원까지 다양한 금액이 모이는데 모인 금액은 결코 적지 않다. 지금까지 4개월 동안 시 산하 공무원 중 60%의 직원이 참여해 1천2백여만원을 모았다. 또 군 · 구에서는 6월부터 1천5백여만원을, 공사 · 공단에서는 7월부터 3백여만원을 모금해 8월 현재까지 총 3천여만원을 모금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모인 모금액은 매월 사회복지모금회의 사랑의 계좌로 이체돼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지원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처럼 작은 실천이 각계 각층으로 전파돼 우리시 전역에서 기부문화의 붐이 일어나는 기폭제가 되어, 민간사회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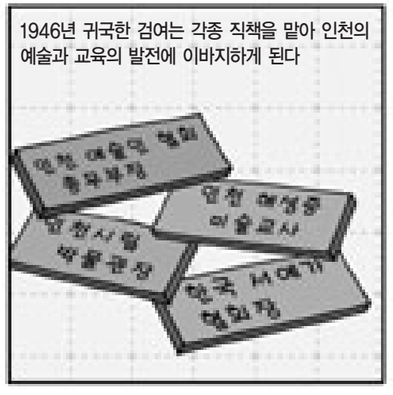
급여 우수리 나눔이라고 해서 공무원이나 시 산하기관에서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체나 일반인들은 인천광역시 공동모금회로 연락하면 언제든지 접수가 가능하고, 기업이 신청할 경우 '이웃을 생각하는 기업 ○호' 라는 현판을 달아 격려한다. 참고로, 기부한 금액은 소득세법에 의해 연말정산시에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웃도 돕고, 세금도 절약할 수 있는 1석 2조의 방법이다.

미국의 기부문화 저술가 아서 브룩스는 '기부의 놀라운 진실' 에서 1달러 기부는 19달러의 수익을 가져오며, 무형의 사회결속 기능까지 고려할 경우 엄청난 사회 · 경제적 효과를 발휘한다고 밝히고 있다. 나눔은 투자이다. 나누면 행복하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된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나눔에 동참하길 기대한다.

불굴의 예술혼

검여 유희강

카툰니스트 · 이영호 (kaljebi@paran.com)



에너지 절약은 국민 모두의 합심으로

올여름은 정말 덥다. 이런 판국에 에너지의 대명사격인 원유의 가격이 폭등해 에너지 소비에 대한 비상 대책이 요구된다.

우리 집은 약 15년 전에 새 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에어컨을 큰 맘 먹고 들여 놓았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에어컨을 켠 것은 몇 번인지 손가락으로 셀 정도이다. 어쩌다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켜려하면 우리 안주인께서 에어컨의 소비전력이 선풍기의 30배라면서 펄쩍뛰는 바람에 마음 놓고 켜지도 못한다.

한 가지 재밌는 것은 TV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전기사용에 대한 신경을 덜 쓰는 것 같다. TV 켜놓고 청소하고 일도 하는 등 TV를 보지도 않으면서 끄지 않는다. TV의 소비전력을 알아보니 120W정도인데 이는 선풍기의 3배다.

내가 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할 때 복도 순시를 하게 되면, 밝은 대낮에도 복도에 형광등이 켜져 있고, 화장실에는 사용자가 없는데도 전등이 켜져 있다. 그걸보면 꼭 스위치를 끄고 지나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거의 무관심한 것 같아 안타까울 때도 있었다.

외국에서는 대체 에너지로 태양열 발전, 바이오 에너지 개발 등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우리는 대체 에너지 개발에는 등한시 하는 것 같고, 그저 석유에 대한 고세율 정책이나, 자동차의 부제 운영 등과 같은 근시안적인 정책에만 의존하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이다. 바라건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정치인과 국민 모두가 더욱 힘을 합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싶다.

노재학_연수구 송도동

에너지절약의 자린고비

어린 시절 "불 꺼야지"라는 말은 엄마에게 늘 듣던 잔소리였다. 나는 무척 겁이 많은 아이였다. 조금이라도 어두운 곳이 보이면 불을 켜놓곤 했다. 특히 부엌은 참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부엌에 갈일이 생기면 낮과 밤에 상관없이 불부터 켜놓곤 했다. 이런 날 '겁쟁이' 라고 역정을 내시던 엄마에 대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런데 어린 시절 엄마의 그 말을 지금 내가 되풀이하고 있다. 독립해서 혼자 살아보니 매달 납부하는 전기요금 덕분에 에너지절약의 필요성을 피부로 깨닫게 되었다. 전기절약을 위해 빈방의 불은 꺼두고, 쓰지 않는 전자제품은 평상시에도 플러그를 모두 뽑아두는 습관을 들였다. 어느 날 보니 집안에 키우는 강아지가 돌아다닐 때마다 현관의 센서등이 켜지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혹시나 해서 전구를 뽑았더니 지난달에 비해 전기요금이 삼천원 정도가 절약되었다. 설마 했는데 전기요금이 줄어든 것을 체험하고,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은 세탁기 돌릴 때 나오는 물을 받아두었다 걸레도 빨고, 화장실 청소도 한다. 그동안 이용하던 자가용 대신 버스로 출퇴근을 하고, 일회용품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나부터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에너지를 더 많이 아끼자고 다짐해 본다.

김지영_부평구 산곡1동

있을 때 잘해

요즘같이 고유가 등 여러 가지 힘든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에너지절약이다. 나는 평소에도 물자를 절약하고 지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직장에서 일하다 보니 불필요한 낭비들이 참으로 많아 나 혼자만이라도 실천한다.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절약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으며, 요즘같이 풍부한 세상에서는 아예 신경도 안 쓴다.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을 소수의 사람들은 달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 스스로 물자절약을 실천한 결과, 많은 자원과 예산이 절약된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 것이 많다. 예를 들어 내부 서류봉투에 볼펜 대신 연필로 기재한 후 지우개로 지워서 다시 사용하며 또 다시 화이트로 지워서 사용하니 새 봉투를 쓸 필요가 거의 없었다. 이렇게 예를 들자면 한없이 많다. 많은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며 동참했으면 하는 마음에 안타깝다. 또한 일회용품들은 정말 줄이기 위해 모두 노력해야 하는데도 나날이 일회용품들을 많이 사용한다. 또한 온난화 등 날씨변화를 피부로 느끼면서도 인간은 어리숙하게도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며, 자연을 파괴하고 불필요한 아파트를 건설해 생태환경에 이상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인간의 한계를 다시 한번 느낀다. 언제나 그 안타까움들을 몸소 느끼며 자연을 아끼는 날이 올지… 있을 때 잘 해 라는 말도 있듯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지키고 아끼라고 말하고 싶다.

이미경_남동구 만수2동

절약대장 우리 엄마

우리엄마는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인 분이시다. 그래서 가끔씩 식구들을 깜짝 놀라게도 하신다. 집안에서 웬만한 일로는 불을 잘 켜지 않으시는 우리엄마. 어느날 새벽에 눈을 비비고 주방으로 나오는데, 검은 형상이 주방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순간 깜짝 놀랐으나, 알고보니 아침준비하느라 도마에 칼질을 하고 계신 엄마였다. "엄마~ 뭐야 깜짝 놀랐잖아, 엄마가 무슨 한석봉 엄마도 아니고, 어둠속에서 왜 칼질을 하고 그래~" 서로 한바탕 웃고 난 뒤, 엄마는 "그래도 보일건 다 보인다고~" 하셨다. 엄마의 절약정신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밤에 화장실 가려고 들어서는 순간,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던 화장실 변기위에 누군가가 걸터앉아 있어 "아악!" 비명을 질렀다. "놀라긴 엄마야~" 처음엔 깜짝깜짝 놀라던 가족들도 이제는 그런 모습들이 익숙해졌다. 삶속에서 절약정신을 실천하시는 엄마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 가족들도 어느새 절약정신이 몸에 밴 것 같다. 공부하다 자리를 비울 땐 반드시 스탠드 불을 끄고, 텔레비전을 보지 않을 땐 코드를 뽑아 놓게 된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에너지 절약을 이루는 것이 아닐까? 우리 엄마의 이러한 에너지 절약정신은 올 여름도 변함없이 현재 진행형이다.

김호정_계양구 작전2동

"쉬~ 할 형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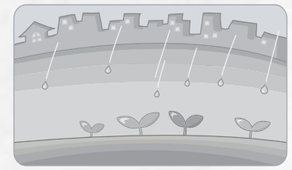
아주 어렸을 때부터 물을 아꼈다. 세수한 물로 발을 씻고, 고무신을 닦거나 걸레를 빨았다. 구정물은 텃밭에 흩뿌려야만 개운했다. 수돗물을 이용하면서는 더욱 귀하게 여겼다. 절약에 갖가지 아이디어가 번뜩였다. 변기 물탱크에 벽돌을 넣어 물 1ℓ씩 덜 받았다. '수온계' 라는 것을 고안해 사용도 했다. 스티로폼 조각을 원판으로 오려 중심에 막대온도계를 끼운 것으로 욕조에 띄우니 수온이 쉽게 나타나 목욕물을 알뜰하게 받을 수 있어 좋았다.

빨랫감을 모았다가 세탁기에 돌리는 지혜에서 착안해, 옛날 요강식의 소변보기를 재연하고 있다. 소변 양에 비해 쓰이는 수돗물이 너무나도 아까워.양변기에 소변을 볼 적마다 5ℓ 이상의 물이 필요함에 놀랐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소변을 보고 한꺼번에 씻어 내리는 것이다.

방학을 맞아 다섯 손자들이 왔다. 손자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워터투어' 에서 보고 들을 것을 이야기 해주었다. 정수 처리 공정을 거치는 수돗물의 생산 과정을 알렸다. 기름과 전기 등 많은 에너지 자원으로 만들어지는 수돗물을 아껴 쓰는 것이 곧 에너지 절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외가의 별난(?) 화장실 사용법을 공개했다. 생각보다 아이들은 잘 따랐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개구쟁이 손자까지 모집책(?)으로 나섰다. "쉬~ 할 형아~". 외마디의 외침이 웃음꽃으로 고유가의 시름을 한 방에 날려 보냈다.

홍성덕_부평구 청천1동

빗물도 받아 모으면 에너지



물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 단 하루, 아니 몇 시간이라도 없어서는 안 될 필수요소다. 하지만 물에 대한 소중함이나 물도 하나의 에너지란 의미를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기 쉽지 않다. 도시에서뿐만 아니라 요즈음은 웬만한 시골에도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어 꼭지만 틀면 집안에서도 아주 편리하게 물을 쓸 수 있으니 참 좋은 세상이다. 그러나 그 물이 나오기까지는 기계와 전기를 이용해야하므로 결국은 한 방울의 물도 에너지다.

요즘같이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여름철에는 수도요금도 정말로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나는 봄부터 늦가을까지는 비오는 날이면 외출했다가도 급히 돌아와 집에 있는 양동이, 고무다라, 플라스틱통까지 내다가 처마 끝에서 쏟아지는 물을 받는다. 이렇게 채워진 허드레 물은 농기계, 자전거, 자동차 세차는 물론 며칠 가물 때면 채소 모종할 때 요긴하게 쓰인다. 텃밭이나 화단에 물을 줄 때 모아 놓은 빗물을 사용하면 소독약이 없으니 식물들도 싱싱하고 수도요금부담도 없어 하는 일이 참 즐겁게 느껴진다.

예전에는 수도를 세게 틀어놓고 내 눈치를 살피며 화단에 물을 뿌리던 아내도 요즈음은 비만 내리면 먼저 물통을 들고 나와 나란히 늘어놓으면서 우리 집은 가뭄 끝, 물부자라고 자처한다. 수도요금이 올라도 우리 집은 걱정 없다며 함박웃음 짓는 모습이 참으로 대견스러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닮은 연분 때문에서일까?

열 마디의 에너지 절약 외침보다는 작은 실천을 손수 이행하고 남에게 보여주는 것만이 진정한 에너지 절약이 아닐까 생각한다.

박덕래_강화군 길상면

다음달 테마는 '취미' 입니다.

'취미' 에 얽힌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사연을 글로 보내주세요(200자 원고지 3매). 사진은 주제와 관계없이 계절과 어울리는 재미있고 사연이 담긴 작품을 보내주세요. 게재된 사진을 돌려받기 원하시는 분에게는 돌려드리겠습니다. 책에 글이나 사진이 실린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 장원은 3장)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주실 곳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청 공보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인터넷 : goodmorning.incheon.go.kr → 독자마당에 올려주세요.
마감은 9월 16일까지입니다. 응모하시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접수가 됩니다. (문의 ☎ 440-8302)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

인향초중고등야간학교에서는 배움의 기회를 놓친 분들을 위해 야간학교 과정을 운영합니다.

- **교육과정** : 초 · 중 · 고등과정 각각 1년 수료
- **모집인원** : 남녀 00명(연령 제한 없음)
- **모집마감** : 9월 26일(금) 선착순 마감
- **수업시간** : 월요일~금요일 저녁 6시40분~9시20분
- **모집특전** : 입학금 및 수업료 무료
- **모집처** : 중구 송월동 3가 3-39 자유공원 기상대옆 (구 송월동 공부방 자리)
- **문의 : 인향초중고등야간학교**
  ☎ 772-4061, Fax 772-4061(www.inhyang.net)
  ※평일 오후 5시 이후에 문의바랍니다.

중추절 맞이 이웃돕기 캠페인

민족의 고유명절인 중추절을 맞이하여 인천시민이 함께하는 중추절 맞이 이웃돕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 **사업명** : 2008년도 중추절 맞이 이웃돕기 캠페인
- **주관** : 인천광역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천광역시 10개 구 · 군
- **모금기간** : 8월 25일(월)~9월 11일(목)
- **사업내용**
  - 중추절 맞이 이웃돕기 성금 및 성품(쌀 등) 접수
  - 기업의 생산제품 및 재고품 접수(현금환산)
-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 보내주신 기부금품과 생산제품 및 재고품은 『소득세법』 제34조 2항 7호에 의한 소득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1항 9호에 의해 손금산입됩니다.
  - 성금을 입금하신 후 본 모금회(☎ 812-6574)로 연락주시면 영수증을 발행,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접수처 : 인천광역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 812-6571~4(모금팀)

가족과 함께 도서관에 놀러오세요.

부평기적의도서관에서는 2008년 연중프로그램으로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한 권의 책으로 가족 모두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저녁, 부평기적의도서관에 가족과 함께 모여 즐거운 책 여행을 떠나요.

- **행 사 명** : 〈책을 만난다. 친구생각 내생각〉
- **행사일시** : 9월 25일(목) 오후 7시 부터
- **장소** : 부평기적의도서관 공연장 어울림
- **대상** : 도서관 어린이 및 가족 이용자 누구나
- **이달에 만나볼 책** : 〈솔이의 추석이야기〉, 이억배 글 · 그림
- **내용**
  - 영상으로 만나는 책 이야기
  - 책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
  - 함께 동요 부르기 및 작은 공연
- **문의 : 부평기적의도서관 ☎ 505-0612~3(www.bpml.or.kr)**

2008년도 9월 무료검진 안내

인천광역시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시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및 의료 소외 계층에게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검진명** : 골다공증 검사
- **검진기간** : 9월 22일(월)~9월 26일(금)
- **검진장소** : 인천광역시의료원 1층(정형외과 1)
- **검진대상** : 인천시민에 한함
  ※ 주민등록증은 꼭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료시간** : 오전 8시30분~오후 4시
- **검사항목** : 방사선 검사, 골밀도 검사
- **검진인원** : 100명
  ※ 골다공증 검사는 만 55세 이상에 한하며 하루 오전, 오후 각 10명씩 실시합니다.
- **문의 : 인천광역시의료원 정형외과 ☎ 580-6085**

한편 9월 보건 강좌가 열립니다.

- **주제** : 변비의 예방과 치료
  현대인에게 많은 증상 중의 하나이며 고통 받고 있는 변비의 원인에 대해 교육하고 예방과 치료에 대해 소개합니다.
- **일시** : 9월 11일(목)
- **시간** : 오후 3시
- **장소** : 인천광역시의료원 대회의실
- **문의 : 인천광역시의료원 총무팀 ☎ 580-6652**

CEO 및 HRD담당자 연수

한국산업인력공단 경인지역본부에서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우리 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유명 인재개발 강사를 모시고 CEO 및 HRD담당자 연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일시** : 9월 3일(수) 오전 9시30분~오후 2시50분
- **장소** : 로얄호텔(간석오거리 소재)
- **신청자격** : 중소기업 CEO(임원)와 HRD담당자
- **연수내용**

구분	연수내용	강사명	현재 근무지
CEO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인을 만들기 위한 CEO의 역할	박호군	인천대학교 총장
	지속성장을 위한 HRD 전략	이송상	대우자동차 본부장
HRD 담당자	조직 내 학습을 일으키는 힘	전정권	삼성전자 부장
	핵심가치 수립전략		추후결정
	성과 관리형 리더십	박희진	유한킴벌리 부장

-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경인지역본부**
  ☎ 820-8607~8610 Fax 819-3985 또는 818-2223
  E-mail 접수 : hgbok@hanmail.net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이용자 모집

인천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인천시 지정사업으로 지역 여성장애인들에게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무료 가사도우미를 파견하며 이에 따라 여성장애인 이용자를 모집합니다.

- **신청자격** : 인천거주 저소득(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여성장애인, 출산 전 · 후 여성장애인 우선 배치
  ※ 강화, 옹진군은 지역 특성상 관리불능으로 제외

구 분	산 · 전후지원	가사지원
접수인원	연중 접수	선착순 5명 마감
지원기간	주 2~5회, 1일 8시간	주 2회, 1일 4시간

- **비용** : 무료
- **신청문의 : 인천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복지팀**
  ☎ 833-3051~2

알아두면 유익한 2008년도 건강검진 정보

- **실시대상**
  - 암 검진 : 2008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 위암/유방암(만40세 이상), 대장암(만50세 이상), 자궁경부암(만30세 이상)
  - 간암 : 2년간 간암발생고위험군, 과년도 간염검사 양성자 중 만40세 이상에 한하여 실시
  - 생애전환기건강진단 : 1968년(만40세), 1942년(만66세) 출생자 전원
- **실시기간**
  - 1차 건강검진 : 12월 31일 까지
  - 2차 건강검진 : 2009년 1월 31일 까지
- **건강검진 비용부담**
  - 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 공단 전액부담
  - 암 검진 : 수검자 20%부담(건별 약 5천원~1만3천원 정도 부담
  ※ 국가 암 대상자(2008년도 보험료가 지역 : 6만7천800원/직장 : 5만6천500원 이하 납부자)는 본인부담 없이 암 검진 가능
- **실시방법**
  - 암 검진 확인서를 지참하여 개별검진 실시(암 검진 확인서 분실시 1577-1000 재발송 요청)
  - 생애전환기 2차 건강진단 : 1차 검진 결과표를 지참하여 검진기관 방문
- **검진시 유의사항**
  - 국가 암 검진 대상자는 반드시 검진실시(암 검진 미실시자는 추후 암 진단시 암 치료비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암 검진은 출장 검진시 받을 수 없습니다. 암 검진 대상자는 반드시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1차진단 결과와 상관없이 2차진단(의사상담)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 생애전환기 2차 건강 진단은 다른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암 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국가암 대상자 중 검진 실시 후 암(5대암)으로 확진 받은 자
  - 지원금액 : 요양기관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최대 3년간 200만원 이내)
  - 지원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동지사 ☎ 1577-1000**

청소년 인터넷 · 게임중독 상담 · 치료 사업 이용하세요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이 인터넷 · 게임중독에 빠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터넷 · 게임중독 위험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개입방법으로 돕습니다.

■ **인터넷 · 게임중독 개인상담 및 심리검사**

개인상담 및 심리검사를 통하여 인터넷 · 게임중독 위험에 놓여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 게임사용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인터넷 · 게임중독 치료 병원연계**

인터넷 · 게임중독이 심각하여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치료적 조치를 받게 하여 인터넷 중독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찾아가는 인터넷 · 게임중독 예방교육**

예방차원에서 인터넷 · 게임중독에 관한 심각성을 알리고 개개인이 건강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학교나 기관으로 직접 찾아가서 실시해 드립니다.

■ **문의 :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김영근 상담원**
☎ 429-5562~3

공공의료 지원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어르신의 건강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 어르신의 건강보험료와 치료비를 지원해드립니다.

- 어르신의 건강보험료는 금년 1월분부터 인천광역시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는 저소득취약계층 중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의 추천을 받아 무료로 치료해 드립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추천을 받아 인천광역시의료원을 방문하시면
  - 백내장, 척추시술, 관절시술, 당뇨, 고혈압 등 질병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조례에 의해 지원되는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 65세 이상 노인단독세대의 인천시민으로 한정합니다.
-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지역 각 지사의 행정지원팀으로 신청하시면 지원기준에 의해 추천서를 발급해드립니다.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동지사장** ☎ 452-7111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홈페이지 OPEN 기념 이벤트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incheon2014ag.org)를 홍보하고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오픈 기념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 **이벤트 내용** : 아시아경기대회 관련 퀴즈 맞추기와 게시판에 응원메시지 올리기

■ **대상** : 홈페이지(http://www.incheon2014ag.org) 회원으로 가입한 전 국민 누구나

■ **참여기간** : 9월 1일(월)~30일(화)

■ **시상** : 퀴즈의 정답을 맞춘 회원과 톡톡 튀는 응원메시지를 올려준 회원에게는 추첨 및 심사를 통해 디지털 카메라(1명), USB 8G(3명), MP3 플레이어(1명), SK와이번스 코리안시리즈 티켓(15명, 각 2매) 문화상품권(80명) 등 총 100명에게 푸짐한 상품 지급

■ 한편,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대회의 유래, 역사, 회원국 등 아시아경기대회의 정보 제공은 물론 조직위원회의 새 소식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가장 빨리 만나볼 수 있습니다.

■ 이외에도 홍보물의 다운로드, 인천유치백서 e-book, 뉴스레터 수신 및 온라인 스포츠 동호회 커뮤니티 활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 458-2204

국비무료교육 받으세요

명진 디지털전문학교에서는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국비 무료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과정	교육기간 및 시간
실업자교육	정보통신설비	9월 22일(월)~12월 19일(금) 오전 9시 50분~오후 4시 20분 연령 : 15세~35세 미만 매월 훈련수당 31만원 지급
실업자교육	개인용컴퓨터수리반 (PC정비)	9월 22일(월)~2009년 3월 20일(금) 오전 9시50분~오후 4시20분
실업자교육	전산세무회계반	9월 22일(월)~2009년 3월 20일(금) 오전 9시50분~오후 4시20분
재직자교육	엑셀/파워포인트반	매월 초, 중순 개강 (화, 목) / (월, 수, 금)반 오후 7시20분~오후 10시10분 ※환급절차 - 사업주위탁 : 회사가 교육비부담, 수료 후 회사환급 - 수강지원금 : 개인이 교육비부담, 수료 후 개인환급
재직자교육	회계첫걸음, 전산회계2급 및 회계기초(더존실무)	
재직자교육	전산회계1급, 전산세무 2급반(더존실무)	
재직자교육	PC 정비 실무	

■ **교육특전**

- 인천시, 노동부, 학교의 전산망을 통한 취업 및 창업
- 매월 훈련수당 11만원 또는 31만원 지급, 노동부 인정 수료증수여

■ **실업자 훈련**

-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퇴직한 분 또는 고용 보험 미적용자(실업자 누구나 접수 가능)

■ **문의** : 명진디지털직업전문학교
☎ 882-3908, Fax 882-4216 www.mjschool.com

제7회 인천평생학습 축제열립니다

부평구청과 북구도서관 주최로 제7회 인천평생학습 축제가 열립니다.

■ **행사기간** : 9월 26일(금)~28일(일)

■ **장소** : 부평구청 및 북구도서관 일대

■ **참여인원** : 7만5천여 명 예상

■ **주요참여기관** : 70여 개 단체 및 기관

- 평생학습도시, 지역교육청, 학교, 18개 평생학습관, 인천평생학습기관, 평생학습시설 · 단체, 지역 학습동아리, 부평구 22개 주민자치센터 등

■ **주제** : 배움! 내 인생의 행복한 동행

■ **주요행사**

- 어울림의 향연 : 지역 평생학습 홍보관 운영, 특별 기획전시 '꿈의 정원, 함께 떠나는 동화 속으로', 평생학습 종합작품 전시회, 학습동아리 활동사례 전시 등
- 배움의 향연 : 평생학습 명사 특강, 주민자치센터 강사 세미나
- 나눔의 향연 : 평생학습 체험마당, 평생학습기관 동아리 경연대회,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어린이 꿈나무 그리기 대회, 청소년 평생학습 캐릭터 그리기 대회, 최고의 명강사를 찾아라, 어르신 문예백일장 대회, 한글로 전하는 마음! 이주여성편지쓰기 대회 등
- 즐거움의 향연 :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버블 매직 퍼포먼스, 뜰아래 잣나무전, 가족과 함께하는 3D입체영화, 각종 축하공연 및 이벤트 등

■ **문의** : 인천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 ☎ 363-5043~6

자연을 닮은 제5기 환경해설가 초급과정 모집

인천녹색연합에서는 환경교육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5기 환경해설가 초급과정'을 진행합니다. 나무 한 그루, 작은 벌레 한 마리를 통해 우리의 삶터를 발견하고 나와 자연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 찾기에 나설 선생님이 되실 분, 초록을 만들어 갈 분을 기다립니다.

■ **교육기간** : 9월 30일(화)~11월 18일(화)

■ **강의시간** :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12시

■ **모집인원** : 20명(신청 접수 후 서류심사로 결정, 개인별 알림)

■ **참가자격** : 교육 후 반드시 생태교육 자원활동 할 수 있는 분

■ **수강료** : 무료, 참가비 3만원

■ **제출 서류** : 아래 첨부파일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 Fax : 548-6273, 이메일 : greenic@chol.com

■ **접수기간** : 8월 20일(수)~9월 24일(수)

■ **문의 : 인천녹색연합** ☎ 548-6274, 6574
이메일 : pongdang@greenkorea.org

자동차사고 유자녀 등 지원합니다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유자녀에게 생활자금의 무이자 대출과 피부양노부모 및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피부양보조금과 재활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지원요건**

–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이거나 다음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 소득 :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아래금액 이하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금액(원/월)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1,487,878	1,712,186

– 재산 : 가구당 재산 8,000만원 이하(옹진 · 강화군 7,400만원이하)

■ **지원금액**

지원구분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기간
생활자금 무이자대출	0세부터 18세미만의 유자녀	월 20만원/인	18세가 되는 달까지(고교재학의 경우 20세가 되는 달)
재활보조금 지급	1~4급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	월 15만원/인	1년 단위로 지원하며, 기간 만료후 재심사하여 계속 지원
피부양 보조금 지급	65세 이상의 피부양 노부모	월 15만원/인	〃
장학금	초등학생(신설)	분기별 10만원/인	– 초등학생은 '학교장추천장학생' 또는 '특기장학생'으로 신청 – 중고등학생은 '성적우수장학생' 또는 '특기장학생'으로 신청 11월
	중학생	분기별 20만원/인	
	고등학생	분기별 30만원/인	

■ **신청기간** : 연중 수시(토요일, 공휴일 제외. 우편 접수 가능하며, 도착일을 접수일로 함) 장학금은(3월, 9월)

■ **상담 및 신청 :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
☎ 1544–0049, ☎ 833–6700 문선희

한중문화관 청소년 idol 선발 대회

■ **참가자격**

– 인천시 중구에 거주하는 청소년(현재 중, 고등학교 재학생)

– 인천시 중구에 소재하는 학교 재학생

■ **참가분야** : 관객에게 웃음을 주거나 흥미를 더하는 모든 분야 (예 : 노래, 춤, 악기연주, 비보이, 개그, 보디빌더, 태권도 등 예체능)

■ **접수기간** : 9월 2일(화)~9월 12일(금) 단, 9월 8일 휴관일 제외

■ **접수장소** : 한중문화관 1층 안내데스크

■ **접수방법** : 신청서 작성하여 접수

■ **선발기준** : 향후 공연 가능한 잠재적 재능 및 가능성 등에 중점

■ **선발방법** : 개별 오디션 후 최종 선발

■ **특전** : 공연 연습과정을 거친 후 한중문화관 청소년 공연단으로 활동기회 부여

■ **문의 : 한중문화관** ☎ 760–7860

2종 보통 7년 무사고 1종 보통 통합 신청안내

2008년 6월 22일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으로 무사고 산정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종 보통 수동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면허신청일로부터 지난 7년간 소급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없고 교통사고가 없는 사람은 국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1종 보통으로 통합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비사항** : 운전면허증, 칼라반명함 3매, 수수료 11,000원

■ **이용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

■ 2007년도 공공기관 행정서비스 실천 우수기관 선정(※2008년 고객만족도 : 전화설문 87%, 방문설문 76%). 전 직원 고객감동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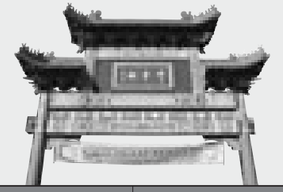
■ **안내전화 : 콜센터** ☎ 1577–1120

제7회 인천 · 중국의 날 문화축제

한국과 중국의 문화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로 자리 잡은 인천 · 중국의날 문화축제. 올해는 공연, 이벤트 행사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더욱 풍성하고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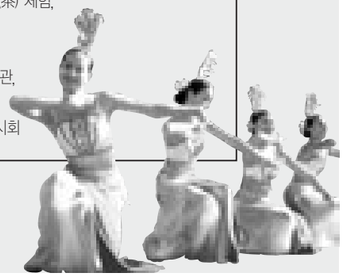
■ **기간** : 9월 26일(금)~28일(일)

■ **장소** : 자유공원, 차이나타운 일원



시 간 \ 일 정	9월 26일 (금)	9월 27일 (토)	9월 28일 (일)
13:30~14:30	한 · 중 문화 거리퍼레이드		
14:30~16:00	한 · 중 문화예술단 초청공연 • 중경시 문화대표단 • 한국 문화예술공연 • 대만 용사단 공연	한 · 중 문화예술단 초청공연 • 중경시 문화대표단 • 한국 문화예술공연 • 대만 용사단 공연	한 · 중 문화예술단 초청공연 • 중경시 문화대표단 • 한국 문화예술공연 • 대만 용사단 공연
16:00~17:00	한 · 중 문화 거리퍼레이드		
16:00~17:30	인차이나 오픈스테이지 (중국만두 먹기, 자장면 빨리 먹기)		
16:00~18:00	축제와 한중문화교류 연계방안 토론회		
17:30~18:00	공연준비 및 리허설	개막식 준비	공연준비 및 리허설
18:00~18:30		식전공연	
18:30~19:00	한 · 중 화합의 밤 • 중경시 문화대표단 • 대만 용사단 공연 • 인천시립무용단 • 한국 인기가수 공연	제7회 인천–중국의 날 개막식	2008 세계인 가요 한마당
19:00~21:00		개막 경축공연	
21:00~21:20		경축 불꽃축제	
상 설 (10:00~20:00)	• 체험행사 : 중국 야시장 체험, 중국요리 경연대회, 한국전통음식 체험, 중국 전통의상 체험, 한국 전통의상 체험, 한 · 중 전통차(茶) 체험, 중국 전통혼례 체험, 즉석사진코너, 중국영화 체험 등 • 전시행사 : 인천시 홍보관, 중경시 홍보관, 인천시 · 중경시 기업홍보관,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 인천방문의 해 홍보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홍보관, 중국바로알기 사진전시회		

■ **문의 : 시 문화예술과** ☎ 440–4022 | www.inchinaday.com



Open Space for Performers

At the Street of Culture

Tourist : Is it true that anyone can perform in Wolmifest's Street of Culture?

Festival Official : Yes, we have created a free atmosphere that encourages spontaneous performance.

Tourist : So if I start dancing like a robot, people will watch?

Festival Official : We provide an 'open space' for performers but can't guarantee people will watch or enjoy you.

Tourist : I think they will enjoy it. I practice five times a week.

Festival Official : The Wolmi Festival would love to see you.

Tourist : Thank you. I also look forward to seeing the performances of others.

Festival Official : There will be many exciting surprises!

문화의 거리에서

관광객 : 누구나 월미축제 문화의 거리에서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축제관리자 : 네, 저희는 자발적인 공연을 장려하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관광객 : 그러면 만약 제가 로봇처럼 춤을 추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한다는 말인가요?

축제관리자 : 저희는 공연하시는 분들을 위해 열린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당신의 공연을 보고 즐거워 할 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관광객 :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제 춤을 재미있어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다섯 차례 연습을 합니다.

축제관리자 : 월미축제에서 당신의 공연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광객 : 고맙습니다. 저 또한 다른 공연자들의 공연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축제관리자 : 월미축제에는 흥미진진한 놀라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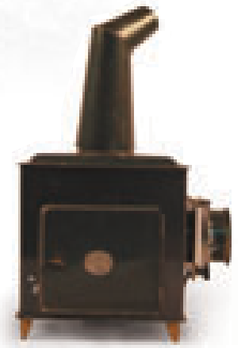
글 · **Timothy James Schultz** 인천영어마을(www.icev.go.kr) 강사

Wolmi Island is Incheon's most popular tourist spot, offering beautiful views, a relaxing sea breeze, and plenty to do. Every September Wolmi Festival draws people from Incheon and all over the metropolitan area to its Street of Culture. The Street of Culture extends for approximately one kilometer and is filled with many performances during the festival. There is a dance performance for the youth, jazz performance, street performance, performance art, and modern art performances. The Street of culture is an 'open space' that encourages excitement, freedom and fun. Even a bit of chaos! It is not a conventionally organized or centrally planned event, but rather grows from the participation of those who attend. All are invited to take part!

The festival is organized by the Jungu-gu Office, Incheon Metropolitan City.

월미도는 인천에서 가장 인기있는 관광지로 아름다운 바다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바닷바람, 다양한 할 거리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매년 9월 월미축제는 인천의 전 지역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문화의 거리로 이끌고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는 대략 1킬로미터 정도 늘어져 있으며, 축제 기간동안에 많은 거리 공연들이 열립니다. 젊은이들을 위한 댄스공연과 재즈, 거리 공연, 공연예술 그리고 현대 예술 공연들이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는 흥미, 자유 그리고 즐거움을 장려하는 열린 공연장입니다. 심지어 약간의 혼돈스러움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축제는 전통적으로 조직되거나 중심적으로 계획된 이벤트는 아니지만, 축제에 오시는 참가자들의 참가 자체만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월미 축제는 중구청과 인천광역시 주최로 조직된 행사입니다.



석유램프를 이용한 환등기

에디슨젬축음기

교리교육용 유리원판

회중시계

인천 통해 들어온 신식물건들

1883년 개항한 인천은 근대문물이 유입되는 관문 역할을 하면서, 개항장은 서구의 근대문물과 조선의 전통문화가 공존하는 격동의 장이 되었다. 유입된 근대문물은 우리 민족의 생활을 변화시켰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시계이다. 서구 상인들에 의해 시계가 전래되면서 우리 조상들은 시간에 구속되는 소위 근대적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근대의 상징이 바로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밖에 신기한 물품들도 들어오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축음기이다. 사진에서 보는 것은 1900년대 초 에디슨사에서 제작한 가정용축음기인 에디슨젬축음기로 원반이 아닌 원통에 홈을 파서 노래를 녹음한 것이 특징이다.

또 다른 근대문물은 기독교, 영국성공회 등의 신종교이다. 언어소통이 불편했던 선교사들은 교리교육을 위해 환등기를 사용했다. 교리내용을 유리원판에 그림이나 필름으로 제작하여 환등장치를 통해 스크린에 확대하면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해 쉽게 교리를 선교할 수 있었다. 전기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석유램프나 목탄을 태워 유리원판을 확대해 스크린에 비추는 환등기를 사용하였다.

글 · 사진 제공 **인천광역시립박물관**